OCT 21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59 1982년 10월 21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hursday, October 21, 1982

저축채권금리 12%

은행금리 보다 높아 경쟁 치열할듯

25일부터 외 은 ·신용조합 도 취급

금년부터는 예금주들의 인기가 높은 연방정부발행의 저축채권(Canada Savings Bond)을 외환은행, 신용조합의 교포금융기관에서도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신규발행 저축채권의 첫해('82-'83)금리는 작년에 이어 시중예금금리보다 2-3%가높은 12%의 고율로 책정, 올해도 역시 그 인기가 높은것 같다. 작년가을 당시의 예금금리인 16~17%보다 높은 19.5%로 이자율이 책정되자 이 채권을 사려는 사람들로 각 금융기관은 장사진을 이뤄 판매기간을 줄여야 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고금리 채권정책을두고 금융가에서는 일반은행의 돈을 몰아가는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판매목표액을 줄이기위해 가능한한 판매기간을 단축하도록 요구했었다.

오는 25일부터 은행등 시중금융기관을 통해 일제히 판매되는 이채권은 11월8일까지 판매될 예정이나 가능한한 빨리 사는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이 채권은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노년층에 인기가 높으며 금액은 1인당 $300부터 $35,000까지 살 수 있다.

작년도 저축채권판매액은 연방정부 재정적자의 28%에 해당하는 128억달러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년도 판매목표는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약 70억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년도 채권의 인기가 높은 이유는 현재 은행금리가 내리막길에 있고 내년도에 고금리로 반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주이유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만약 시중은행의 예금금리(현재 9~10%)가 다시 상승, 12% 이상 되면 언제든지 해약 되며 원금과 날짜까지 계산한 이자전액을 되찾을 수 있다.

금년도에 발행되는 저축채권은 최소금리를 8.5%로 보장, 시중금리 가 4~5% 떨어져 8.5%이하로 떨어져도 차후에 채권금리 8.5%는 보장된다.

(2면에 투자상담가 강상욱씨의 해설 참조)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82 월드 시리즈

카디널스대승 13:1

20일 마지막 한판

(세인트·루이스)세인트·루이스·카디널스의 53,723명 야구팬들은 비가와도 즐겁기만 했다. 비때문에 중단, 야구한게임 더 치를 수있는 2시간 39분을 기다려도 지루하기는 커녕 콧노래만 절로 나왔다. 5회말 비로 중단됐을때 스코아는 7:0, 비는 그쳐도 카디널즈의 방망이는 되살아 나 13:1로 월드시리즈 6차전에서 밀워키·브루어스를 대파, 시리즈를 3승3패 동률로 이끌었다.

메이저리그 정규시즌동안 브루어스는 어느팀보다 홈런을 많이 때렸고 카디널스는 홈런이 가장적은 팀 이었다.

19일밤의 카디널스는 홈런없어도 단타와 빠른 발로 대거 13점을 올려 밀워키의 올스타투수 돈·서튼과 6회에 등판한 덕·매딕을 맹폭했다.

제79회 월드시리즈는 이제 마지막 1전을 남겨놓고 20일 8시 세인트·루이스에서 대결한다.

7차전 세인트·루이스의 선발투수는 에이스 자쿠·엔도자이고 밀워키는 베테랑 피터·부코비치를 등판시킨다.

◆카디널스의 보물 로니·스미스는 3회말 홈·스틸을 기도, 텔리비젼카메라에는 세이프로 잡혔으나 주심 짐·에반스에 의해 아웃됐다. 프로야구에서 좀처럼 찾아 볼 수 없는 홈·스틸은 월드시리즈에서는 더욱 귀해 64년 이래 한번도 성공못했다.

로니·스미스는 80년 필라델피아·필리가 월드시리즈를 제패할때 2번타자·레프트 필더로 활약했다가 금년에 카디널스로 이적했다.

야구채택검토

'88 서울올림픽

(로잔=스위스 13일)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사마란치 위원장은 로잔에서 10일부터 열린 IOC이사회의 최종일인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84년 LA올림픽에서 야구를 정식종목으로 채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나 88년 서울올림픽에서 야구를 채택하는 문제는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캐나다 관계의 교량이 되는 신문
이민의 정치적·경제적 권익을 가꾸어 가는 신문.
—토론토·한국일보—

개소린가격 대폭 인상

1ℓ에45¢로 10¢ 올라

캐나다의 주요 석유회사중 적어도 3개회사는 지금까지의 격렬한 가격경쟁을 청산하고 개소린가격을 1리터당 최고 10센트(1개론당 약45센트) 올렸다.

쉘·캐나다, 걸프·캐나다, 임페리얼·캐나다등 3개 주요석유회사들은 19일 서로간의 경쟁을 종식하고 self-serve 레귤러·개소린 가격을 1리터당 45센트(1개론당 2달러)로 상향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수주간 메트로지역에서는 레규러의 경우 1리터당 최하 35센트까지 판매됐었다.

메트로에 있는 쉘주유소들은 19일 레규러가격을 1리터당 45.3센트로 올렸으며, 임페리얼·오일의 에소(Esso) 주유소들도 1리터당 약 8센트씩 상향조정했다.

걸프주유소들도 20일부터 레규러 1리터가격을 종전의 35.9센트에서 9.4센트 올려 45.3센트씩 받기 시작했다.

쉘·캐나다 대변인 폴·자코트씨는 이번의 유가인상에 관해 언급하면서 이는 인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격정상화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지난한해동안 불경기와 상호경쟁 때문에 일부지역에서는 30센트까지 가격이 내려갔던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쉘측은 지난 6개월동안에 두차례나 개소린가격을 최소한 이윤이 나는 선까지 올릴려고 시도를 했으나 그때마다 석유시장의 약세와 과다경쟁 때문에 올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Merrill Lynch Royal Securities Ltd
금·은·증권·Bonds·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강상욱
CANADA SAVINGS BOND는 언제나 현금으로 찾을수 있는 가장 안전한 투자대상이 된다. 이는 매년 가을에 한번씩 발행되며, 작년에는 주문이 폭주하여 마감일을 앞당겼읍니다. 저희는 이의 구입에 일체의 수수료를 부가하지 않고 모든 문의에 무료로 봉사하고 있다.

◁사 고▷

한국미 앙상블

사진 : 이기성
모델 : 허윤정(왼쪽)

출품마감 10월 30일

한인사진협회(회장 전경수)와 본사가 공동주최, 지난 2 일 실시한 제7회 사진촬영대회에는 50여명의 의욕적 카메라맨이 참가, 기량을겨루었읍니다.

단풍과 미녀모델을 렌즈에 담은 우사진들이 다수 출품될 것이 기대되며, 출품자 들은 아래 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출품마감 : 1982년10월30일
부 문 : 칼라, 흑백, 슬라이드
사진크기 : 8인치×10인치 이상
접 수 처 : The Korea Times 1025 Dupont St. Tor. M6H 1Z7 (Tel : 533-2361)

이민사자료 계속 접수

제3차 7명의 27점

지난 8월초부터 10월20일에 걸쳐 8명으로부터 32점의 참고자료(책자·문헌등)가 한인이민사자료실(실장 이석현)에 들어왔다.

문학저서·동인지·종교관계 서적등 다방면에 걸쳐 접수된 이 자료들은 비록 양적으로는 대단한 것이 아니나, 이민사 정립을 위한 소중한 벽돌 한장 한장이 되는것이다.

앞으로 많은이들의 더욱 많은 희사가 기대된다.

이번 제3차로 발표되는 기증문헌중에는 고종옥신부의 한인초대 복합문화성 자문위원 임명장(사본), 토론토한인사회 최초의 오페라 「춘향전」프로그램, 한인장로교회 창립15주년기념집, 유인형·여동원 양씨의 이민수기(수상집), 교포길미자씨(길병태씨의 따님)의 수녀시절 수기, 문인협회 제4합작집등 알찬 자료들이 끼어있다.

◉ 자료 접수처:
한인이민사연구실
c/o The Korea Times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제3차로 접수된 이민사 자료및 기증자

◉고종옥신부
1) 연방정부 복합문화성 한인 초대 자문위원 임명장(사본 73년)
2) 오페라 「춘향전」프로그람(토론토 73년11월)
3) 김대전회관 건립회보

◉박희민목사
1) 「개척자」(1982년 6월초)
2) 「토론토한인장로교회 일람」(82년도)
3) 「토론토한인장로교회」(82년 창립15주년 기념)
4~8)토론토한인장로교회 「사업보고」(77~81년도)
9) 토론토한인장로교회 「장로교회 일람」(80년도)
10)「82년도 2학기 안내」(토론토한인성서학원)

◉여동원씨
1)수필집 「이민낙서」(태양출판사 발행)

◉유인형씨
1)수필집 「에드몬톤의 불꽃」(82년간)

◉박성민씨
1)대학생동인지 「구름다리」(4)(81년 10월)
2)대학생동인지 「구름다리」(5)(82년 12월)
3)대학생동인지 「구름다리」(6)(82년 2월)
4)대학생동인지 「구름다리」(7)(82년 8월)
5)대학생회지 「맥돌」(4)(KUSA,82년 3월)

◉토론토한인신용조합
1)「81년도 연차보고서」

◉조미태씨
1)「Le Frere Andre」(몬트리얼의 요셉 성인)

◉캐나다한국문인협회
1)회원합작집 「이민도시·4」(82년 4월범)
2)「'82 문협시화전」프로그램(82년 10월)

은하 보석
란콤 화장품 대리점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귀국선물
☎: 534-9977,7791 620A Bloor St. W.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영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메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B) 622-5147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한인신용조합에서는 6주년을 맞이하여 '82년도 목표액인 자산 $3,000,000을 달성하고, 보다 나은 대 조합원 서비스를 위해 Canada Savings Bond 판매및 RRSP, RHOSP 창구를 마련하여 봉사하고 있사오니 많은 애용을 바랍니다.

● Canada Savings Bond
이자율 : 년12%
한도액 : 일인당 $35,000
(3인 가족이면 3×$35,000=105,000)
접수일 : 10월25일부터

▪RRSP
▪RHOSP
11월1일부터 취급 예정임

●일반정기 예금

비고 \ 기간	신용조합	일반은행
30일	11.5%	10.5%
90일	12.0%	11%
180일이상	12.0%	11%

▪오뚜기정기예금 6개월 11.75%
1 년 11.75%

토론토 한인신용조합
533-9387/9388
641A Bloor West Tor.

East Asian Library
Rm 3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11월8일은 시 총선날

기록적인 692명 입후보

6명 시장과 시의원 76명등 선출

주택, 상점, 사무소에 나붙은 선거 후보자들의 패말이 이번 선거에서는 더욱 요란하다.

오는 11월8일로 다가온 온타리오주의 각시를 운영할 대표자를 뽑는 총선거를 앞두고 메트로·토론토에서는 692명이라는 기록적 숫자의 입후보자가 등록을 마쳤기 때문.

이번 선거의 입후보자가 지금까지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 72년 선거때 보다도 86명이 더 많은 이유는 높은 실직율에 기인할지 모른다고 19일 시청직원이 밝혔다.

시선거의 유권자가 되려면 시민권자나 영연방 여권소지자여야 하며 18세 이상으로 각 지역의 선거사무소에 등록해야 투표권을 얻을 수 있다.

시의원에 당선되면 연봉 $37,000을 받게되며 또 그중 3분의 1은 면세소득이다.

이번 시선거에서는 6명의 시장, 14명의 시재무관(Controllers)및 76명의 시의원이 선출된다.

또한 76명의 공립학교 교육위원(Trustee)과 24명의 캐롤릭학교(Seperate School) 교육위원(Trustee), 18명의 공립학교위원회에 보낼 캐롤릭학교 대표 및 8명의 하이드로위원회 위원도 아울러 선출되며 선출내용은 각 보로(Borough)마다 조금씩 다르다.

시장(Mayor)은 토론토, 이스트·욕, 스카보로, 이토비콕, 노스·욕, 욕·보로의 6개 시에서 각 1명씩, 시의원(Alderman)은 각 구역(Ward)마다 2명씩 선출한다.

692명의 입후보자중 제일 나이많은 후보는 68세의 소네·코헨. 그는 1914년부터 선거때마다 입후보해온 사람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노스·욕 시재무관 4명중의 1명에 선출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가장 나이어린 후보는 18살의 제임스·브라운군. 그는 이토비콕시의 데니스·플린시장에 도전, 시장자리를 노리고 있다.

시선거에서는 10명의 추천이 있으면 공탁금이 없어도 입후보할 수 있다.(주 선거나 연방선거는 반드시 공탁금을 예치해야 한다) 그러므로 브라운군이 입후보한 뒤 드는 선거비용은 공동선거유세지에 가는 데 드는 버스값 약 $5 정도가 전부이다.

투표소 개장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투표장소및 기타문의는 각 시청서기(City Clerk)에 전화로문의하면 된다.

◉스카보로

스카보로에서는 모두 148명이라는 기록적 숫자의 입후보가 나섰다.

현시장 거스·해리스와 재무관인 브라이언·해리슨이 시장직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될것으로 보인다.

◉이스트·욕

이스트·욕에서는 현 시장 앨런·레드웨이가 보수당 연방하원후보로 나설 목적으로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음으로써 제1지역 시의원 데이빗·존슨과 허브·맥그로티가 시장후보로 유력하다.

4개지역(Four Wards)에서 25명이 8석의 시의원자리를 놓고 경쟁하며 4명의 하이드로 위원도 선출된다.

◉욕·보로

현시장 게일·크리스티에 도전한 시장후보로는 앨런·통크스(전 재무관)가 유일한 후보이다.

8개지역의 시의원자리를 놓고 28명이 경합하고 있으나 제8지역의 시의원직은 단독출마한 마이크·와틀로스키가 이미 확보한 셈이다.

◉토론토

토론토 시장은 11명의 입후보자중 아트·이글톤이 재선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시의원은 11개 구역에서 각 2명을 선출하며 그 중 특히 제1지역의 데이빗·화이트 현 시의원과 빌·보이취, 전 신민당하원의원인 에드·지엠바의 경쟁이 가장 치열할 듯.

제3, 제6지역에서는 누가 당선되는가 하는 것보다 어떤 순서로 당선되는가가 중요하다.

제3지역의 조·피시니니 의원은 금년초 "여성들은 시청에 구직신청하러 가지도 못할만큼 너무 게으르다."고 발언한 것이 화근, 여성들에 공개 사과하는등 진땀을 뺀적이 있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리차드·길버트의원에 득표수가 뒤질 것으로 보인다.

제6지역은 중국계인 고든·청과 전 토론토시장 존·스웰이 당선되겠지만 누가 더 많이 득표할지가 관심거리.

불루어 한인상가가 있는 제5지역에서는 중국계 잉·호프와 존·타파지아니스등 6명이 출마했다. 잉·호프는 중국인코뮤니티에서는 그다지 인기를 못얻고 있고 몇년전에는 공금횡령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었지만 현직의원이므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토비콕

총107명의 후보가 경합한다.

시장직은 현 시장인 데니스·플린과 메트로내의 입후보자중에서 최연소자인 18세의 제임스·브라운군등 6명이 경쟁한다.

◉노스·욕

시장 멜·래스트맨은 13학년 학생인 이언·칼루쉬너등 2명의 도전을 받고 있다.

시재무위원에는 밥·유일등 11명이, 14개 지역 시의원에는 47명이 경합한다.

◆배운송여사가 장로교회 바자회에 출품할 헬로윈 의상들. 쥐, 호랑이, 벌, 어릿광대의 의상이다.

장로교회, 여선교회 바자회

배운송씨의 헬로윈의상도

한인장로교회 여선교회(회장 서혜석)는 헬로윈·데이인 30일 헬로윈 의상을 비롯한 다양한 물품을 준비, 대규모 바자회를 갖는다.

자녀들도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이 바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인장로교회(1183 Davenport Rd. 전화: 535-6864)에서 개최하며 취급품목은 헬로윈 의상외에 일반의류, 밑반찬류, 배추등 김장 재료, 책류, 조화및 생화, 화장품등이며, $3씩에 만두국, 곰탕을 즉석에서 사먹을 수 있다.

헬로윈의상은 무대의상 전문가인 배운송(65) 여사의 작품으로 가격은 시중가격보다 저렴하며 작품수는 20점 정도. 2살부터 12살까지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벌, 호랑이, 쥐, 어릿광대, 드라큐라, E.T.등의 인물로 분장할 수 있는 의상들이다.

일본 동경 쓰기노양재학교 출신인 배운송씨는 피아니스트 심소자씨의 어머니로 현재는 러시안계 극단의 무대의상을 제작하고 있다.

중공, 잠수함 미사일성공

세계 5번째 보유국

(북경)중공은 16일밤 동지나해 공해상에서 실시한 잠수함운반 미사일발사 실험에 성공했다.

이날 중공관영 신화사통신은 이 로켓실험은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에 걸쳐 북위 28도13분, 동경 123도53분을 중심한 반경 65Km의 해상에서 실시, 예정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도했다.

북경방송의 발사실험 보도동으로 미루어 이 로켓은 잠수함에서 발사된 것이 밝혀졌다. 발사지점은 분명치 않으나 북경내 서방측 소식통은 발해부근 해상에서 남쪽을 향해 발사된 것으로 추정했다.

중공은 80년5월, 감숙성에서 남태평양의 공해상을 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실험을 성공시켰고, 이어 81년7월에는 한개의 로켓으로 3개의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실험에도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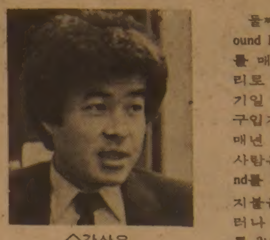
이번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의 성공으로 중공의 미사일 전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 예상된다.

중공은 4대 근대화사업의 하나로 국방의 근대화를 내세워, 인민해방군의 정규화, 근대화를 서두르고 있다. 제12회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룽치고 당과 국무원의 기구개혁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군의 근대화와 기구개혁은 당면의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 아래 실시된 이번 발사실험 성공으로 중공은 미국·소련·영국·프랑스에 이은 5번째 SLBM 소유국이 되었고, 중공군의 근대화는 이번 발사성공을 계기로 가일층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채권(Savings Bonds)란?

강상욱(메릴린치증권회사)



◇강상욱

1. 특징

저축채권(Canada Savings Bond)은 연방정부가 캐나다중앙은행(Bank of Canada)을 통해 발행하는 국채의 일종으로 일반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어느 예금증서보다 안전하다.

매년 10월에 한번씩 발행되며 발행시, 1년간의 이자율과 잔여기간 동안의 최저 이자율을 공고한다. 이번에 발행하는 82-83 Series의 경우 내년 10월까지 지급하는 이자는 년 12%이며 그후에도 최저 년 8.5% 이자가 보장된다.

★CSB는 언제라도 현금으로 찾을 수 있으며, 찾을 때는 아무런 벌과금없이 찾는날 까지 이자가 가산된다. 따라서 시중의 일반이자율이 올라 은행에 예금하는 것이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면 현금으로 되찾고, 반대로 시중이자율이 CSB보다 내려가면 그대로 두면 된다. 다시 말해 CSB의 이자율은 현금으로 찾아가는 사람이 늘어나면 상향조정되나 이미 결정된 이자율을 하향조정하는 법은 없다.

★CSB는 구입자의 이름으로 등록이 되며, 남에게 팔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 즉 발행시 등록자 이외에는 아무도 현금으로 찾을 수 없으므로 증서의 도난이나 분실의 경우에도 안전하다.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때 담보로 사용될 수 있다.

2. 저축채권의 구입방법

국채가 발행될 때는 13개의 투자회사에 할당이 되며, 이 13개의 딜러는 어떤 특정인이나 기관에 판매점(Sub-agent)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따라서 CSB는 이를 취급한다는 기관에서는 누구나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시에 수수료는 전혀 없다. 구입시에는 반드시 일정한 양식에 필요한 자료를 기입해야 하고, 까다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서류작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류작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본인은 신청시 구입한 줄 알고 있으나 마감일에 가서 중앙은행(Bank of Canada)이 접수하는 과정에서

언제라도 현금화 가능

최저금리 8.5% 보장

반려될 수도 있다.

구입마감일은 11월8일까지이며 Bank of Canada의 정식 접수는 10월25일부터 시작된다. 작년에는 구입자가 너무 많아 마감일을 앞당긴 것을 고려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딜러에 따라 그들이 신청자로 부터 돈을 받는 날부터 Bank of Canada에 접수하는 날까지의 이자를 별도로 계산해준다.

3. CSB의 종류는?

현재까지 나온 것으로는 4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2가지가 있다. 매년 11월에 한번씩 이자가 지급되는 정규채권(Regular Interest Bond)이 있다. 이 경우 원금을 제외한 이자는 매년 11월1일 구입자에 우송되든지 은행구좌에 자동적으로 적립된다.

둘째, 복리계산채권(Compound Interest Bond)으로 이자를 매년 지급받는 대신 복리로 원금에 가산하여 만기일 또는 해약시 찾는다. 구입자의 소득세율이 높아 매년 이자지급을 원치않는 사람은 Compound Interest Bond를 사므로 이자소득 세금지불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신세법은 이의 연기를 3년 이상은 허락하지 않는다.

4. 얼마까지 살 수 있는가?

증서단위는 최하 $3백에서 최고 $1만까지 여러종류가 있으나 금년은 1인당 35,000달러까지 구입할 수 있다. 미성년자 명의로도 구입이 가능하므로 3인 가족이라면 $105,000까지 가능하다.

5. 지난해에 CSB를 구입한 사람은 그냥 놔두는 것이 좋다. 지난해 판매된 CSB는 최소금리가 10.5%고 금년에는 12%를 받으나 만약 차후금리가 10% 이하로 떨어져도 이금리는 보장된다.

따라서 금년도 발행분 CSB의 최소금리 8.5%보다는 유리하다.

저축채권의 구입문의는 필자 강상욱씨(메릴린치증권회사: 361-3428)나 또는 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하면 된다.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91>

金聖鍾작

얼굴없는 死者 ⑮

선글라스낀 사나이의 사인紙도 찾아내…

홍포하기 짝이 없는 사나이였다. 식당에있는 손님들은 그것을 보고 모두 분개했다.

『여자를 그렇게 때릴수 있느냐고 어떤 점잖은 신사분이 나무라자 그 사람은 내 여편네 손봐주는데 당신들이 무슨 참견이냐고 했읍니다. 자기 여편네라는데야 할 말이 있어야죠.』

지배인은 머리를 내저었다.

『그래서요?』

마인은 바짝 긴장해서 물었다.

『여자는 아마 정신을 잃었지요. 여자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가는걸 봤는데 아마 방으로 가는 것 같았읍니다.』

『이 호텔에 투숙했었나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카운터에서 현금을지불하지않고 사인만하고 나갔으니까요.』

『투숙객은 사인으로 통하나요?』

『그렇죠. 체크아웃 할때 한꺼번에 계산하도록 되어있읍니다. 물론 그때그때 현금으로 계산해도 되지만 그게 귀찮은 사람은 나중에 계산하기로하고 사인으로 대신합니다.』

『그 사람 사인해둔 청구서가 지금도 있을까요?』

『오래된 것이 아니라서 아마 있을겁니다. 그사람 이름을 아시나요?』

『그걸 모릅니다.』

마형사는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이름을 모르면 못찾죠.』

지배인은 손을 흔들었다.

『12월4일을 전후해서 여기서 상어지는러미요리를 시켜먹었으니까 그걸 단서로 해서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청구서에 요리종류가 적혀 있을거 아닙니까?』

지배인의 얼굴에 귀찮아하는 표정이 나타났다.

그때 늙은 형사가 들어섰다. 시간이 오래 걸리자 무엇인가 걱정되어 달려온 것이다.

마형사는 김형사를 데리고 구석으로 가서 재빠른 어조로 대강 설명해주었다. 이야기를듣고난 김형사는 지배인을 위압적인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살인사건에 관계되는 일이니까 협조해주시요.』

그는 지배인 옆으로 다가가 낮은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살인사건이라는 말에 상대방은 움찔하고 놀라는것 같았다.

잠시 후 그들은 카운터 여직원이 가져온 청구서 뭉치를 풀어놓고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많은 서류를 처음부터 하나하나 조사할 필요는 없었다. 먼저 12월4일자 청구서만을 골라낸 다음 그것들을 세밀히 검토해나갔다. 그런지 30분도 못돼 마형사는 마침내 찾던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것을 지배인과 카운터 여직원에게 확인시켰다.

『네 맞습니다. 상어지느러미 요리를 먹고나서 사인한 겁니다.』

지배인이 단정적으로 말했다. 거기에는 요금이 무려 15만원이나 나와 있었다.

『아가씨가 이 요리를 시켜먹은 사람한테서 받아낸 사인 입니까?』

김형사가 카운터 여직원을 향해 물었다.

『네, 제가 받아낸 거예요.』

여직원은 두 말하지 않고 인정했다.

『그 사람 인상은?』

『키가 크고 잘 생긴것 같았어요. 갈색 코트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잘도 보았군.』

옆에서 지배인이 놀리는 투로 말하자 여직원은 얼굴을 붉혔다.

朴男 그림

본사동정

최귀암씨 광고국에 합류

광고디자이너 최귀암(29)씨가 광고국팀에 합류, 본보 광고지면을 빛내고 있다. 금년에 온타리오미술대학(OCA) 상업미술과를 졸업한 최씨는 "광고효과는 디자인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디자인은 전문가와 상의해 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학교 재학중 신문광고 분야에서 근무, 많은 경험을 쌓았다.

최씨는 광고주상담도 담당한다. 전화 533-2361

◆최귀암씨

〈생활상식〉

겨울철 난방시설 재점검 필요

"개스전환 히터로 굴뚝 막힐수 있다"

막히면 일산화개스 누출로 생명위험

겨울철을 앞두고 주택소유자들은 난방설을 재 점검해야 된다.

온타리오주정부는 특히 난방시설을 오일용에서 천연가스용으로 개조한 주택소유자들은 굴뚝이 막히는 것에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주정부는 지난주부터 실시한 겨울철 안전·캠페인을 통해 굴뚝관리를 잘하지 않았을 경우, 가스가 방안으로 들어와 일산화탄소에 질식사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난방시설을 천연가스용으로 개조했을 경우 굴뚝속에 특수보호안대를 부착하지 않으면 부식가스로 인해 벽돌이나 석회석이 부서져 내려앉아 굴뚝을 막히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1979년에 난방시설에서 일산화탄소가 집안으로 들어와 질식사한 사건이 2건이나 일어나 이로인해 4명이 사망했다.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굴뚝속에 안대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지붕위 굴뚝에 흰색분말이나 물기흔적이 있을경우.

○지하실의 굴뚝밑바닥으로 부터 집내부쪽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다거나 얼룩된 흔적이 있을 경우.

○굴뚝 밑바닥의 굴뚝 청소구안쪽에 벽돌이나 석회석이 푸석푸석하게 되었을 경우.

소비성 기술표준국은 주택소유자는 적어도 1년에 한번씩 공인된 굴뚝청부업자에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한다.

통계에 의하면 온타리오의 주택 약6만채(메트로지역 4만채)가 오일난방에서 천연가스난방으로 개조했고 이중 불과 5분의 1만이 가스방출에 적합한 굴뚝을 지니고 있다.

난방시설을 천연가스용으로 개조했을 경우 굴뚝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천연가스가 오일보다 낮은 온도에서 정화, 굴뚝을 빨리 통과해 밖으로나오지 않고, 굴뚝속에서 머뭇거리기 때문이며 이로인해 벽돌이나 석회석을 침식, 마침내 굴뚝을 막히게 한다.

연방정부는 80년10월 이후에 난방시설을 천연가스용으로 개조하고, 굴뚝에 특별안대를 필요로하는 주택소유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모짜르트 음악학원

학생모집

<장학금제도실시>

저희 음악학원에서는 적극적인 부모님들의 자녀 음악교육 성원에 힘입어 HILL CREST MALL(영×리치몬드힐) 내에 제2분교를 개설해서 자신을 갖고 책임지도하고 있읍니다.

우수한 시설과 명문대학 출신들의 교수진으로 이루어진 저희 음악학원에 자녀들의 음악교육을 맡겨주십시요.

우수한 학생들의 장려를 위해서 장학금제도로 실시중에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윤 호섭 올림

※수시로 등록할 수 있읍니다.

Markham Place
2900 Steeles Ave. E.
Thornhill
☎ : 881-8211

모짜르트 MUSIC CENTER

Hill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 : 883-9407

김장철 서울대매출

김장철이 다아 왔읍니다.
저희 식품점에서는 모든 김장준비에 모든 종류를 완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코저 하오니 일차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기간 : 10월20일(수)~11월20일(목), 1 달간.
품목 : 고추가루·새우젓·배추·무우·굵은파(김장용)
·갓·마늘·생강·김장통

274-5401

⊙김장김치 주문 환영
—양념된 김장김치 한통에 25불
—양념된 총각무 한통에 40불

※김장철에 한해서 특별히 배달 해 드립니다.

한밭식품

466 SOUTH SERVICE RD. -미시사가 한글학교 옆-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실협뉴스

K.B.A.NEWS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627A BLOOR ST W
TORONTO ONT M6G1K8
533-7923-4
COMPLAINT CENTRE (HOT LINE) 533-8344

「상협」 끝내 발족

합의서명 무시한채

실업인협회와 유사한 또 하나의 경제단체를 조직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협회는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두고 꾸준히 성장해온「온타리오실업인협회」 기치아래 하나의 범교민적인 경제단체로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태도로「상협」의 발족에 대하여 설득과 만류등 최선을 다했다.

22일의 협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16일 전격적으로 발기총회를 개최한「상협」측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실협은 14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동일 저녁 10시「상협」측의 김완수, 조병역, 정창헌씨의 대표자들과 한자리에 모여 우여곡절 끝에 신문지상에 공표된 바와 같이 쌍방이 합의 서명했으나 16일 발기총회에서「상협」측은 합의의 내용을 묵살한채 전격적인 회칙 통과와 조직을 강행했다.

실협측의 차회장은 "협동조합이라는 중차대한 우리의 숙원사업 실현을 목전에 두고 분열없는 교포사회의 분위기 조성과 실협의 장기적인 발전목표가 끝 회원들의 건전한 타사업전향에 의한 명실상부한 실업인의 협회이어야 한다는 신념아래 유사한 단체 발족 만류에 최선을 다했으나 무위로 끝나 회원분들께 죄송스럽다. 우리의 800회원 어느 누구도 구멍가게(?)를 평생의 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대동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모신문지상에 발기인으로 나와 있는 외환은행, 언론기관등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하여 발기인으로 수락치 않았음을 알려왔다.

다음은 명칭, 회원및 목적상 전혀 차이점이 없는「실협」과「상협」의 정관비교이다.

합의서

[illegible]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와 가칭 "한인상공인협회"는 공동관심사를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의 기치하에서 서로 협의하여, 단결하여 나갈 것을 신중히 합의한다.

1982년 10월 15일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회장 차 선 겸
가칭 한인상공인협회발기위원회 위원장 김 완 수
입회증인 김 현 모

▲실 협

제1조(명칭): 본회는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라 칭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한인사회및 카나다의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회원): 한인으로서 카나다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갖고 사업체를 가진 자 또는 그 경영자를 말한다.

▲상 협

제1조(명칭): 본회는 온타리오한인상공인협회라 칭한다.

제3조(목적): 1)우의증진과 상부상조, 2)사업정보의 교환및 협조,3)경영합리화및 기업육성,4)한인사회발전에 기여.

제5조(회원): 온타리오지역을 중심으로 재카나다동포로서 본회의 취지를 찬동하고, 기업인으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

이민 적극 장려

정노동차관 간부진과 환담

지난 17일 한국의 정동철 노동부차관 일행이 토론토에 도착했다. 이들의 캐나다방문 목적은 각종형태의 대 캐나다 이민을 위한 정부측면에서의 연구와 지원책 모색이며, 업종별에 따른 투자이민 정책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10여명의 교민 교포단체장들과 환담하였다.

한편 18일 정차관 일행은 실협간부진을 다운타운의 Westin호텔로 점심초대하고, 한국정부측의 이민 적극장려책에 대한 설명과 이곳 현지의 캐나다사회에서 업종별 이민가능성을, 특히 투자이민 측면에서 토의하였다.

정차관은 "한국은 현재 5인가족 이민의 경우, 10만달러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되며, 캐나다의 경우 10만달러선이 투자이민의 기준이므로 교포단체의 주축인 실업인협회원들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하였으며, 실협측은 우리의 업종이 가족단위 운영이어야만 한다는 특수성을 강조하고, 우리가 믿고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한국의 친척을 이민초청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투자이민의 경우 외환관리법상 이민전 외화해외유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재한국 캐나다은행에 소정의 액수를 예치함으로써 투자이민의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도록 건의하였다.

Welcome to K.B.A.

The Market Basket—염영호, Golden Milk Variety Shoppe—신화성, Bayview Variety Gift & Smoke—이용구, S & Y Variety Store—노세진, Milk Mart—고상현, Mac's Milk—이상열, Center Smoke Shop—이승우, White Smoke & Gift—차경수, 220 Convenience—김학규, College Discount—계종성.

—〈회원기고〉

내일의 실협 협동조합

김영무(실협회원)

◆김영무씨

어려운 여건에서도 오늘의 대실협 육성에 열심히 노력해 주신 그간의 집행부, 임원진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더욱더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극심한 불가고로 인해 시장유통이 몹시 둔화된 상황에서 기라성같은 기존 도매상에 도전해야 되는 매우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읍니다.

차제에 다시 한번 더 새로운 각오로써 치밀한 사전계획과 사무대책을 완벽하게 세워 두어야겠읍니다.

회원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기대해서도 안되고, 거족적인 호소도 사실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몇가지 품목의 높은 가격은 인정하더라도 일목요연한 물품구입에서 총액에 대한 가격차이가 심하면 거리에 관계 없이 외면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600여 협회원 한분 한분을 모두 주주로 끌어들여서 내집 내가 꾸려나가는 식의 책임감을 유도하는데 먼저 주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협동조합의 자금등 모든 제반업무가 실협산하에 속하는 총적인 기구로 일단 설립되겠으나 모든 업무 개시후에는 횡적으로 독립해서 조합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해 두어야겠읍니다.

따라서 실협의 집행부나 이사진은 하나의 자문기구로 제도화함으로 모든 제반업무나 집행에 대한 책임은 조합 자체에서 지도록 해야겠읍니다.

만에 하나 조합의 진퇴문제가 7-8년, 의기투합해서 이룩한 실협의 존재가치를 위협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협동조합의 인선문제는 가능한한 지역이나 잡다한 파벌감정, 배경을 초월한 현명한 안배로 어떠한 잡음이 있어서도 안되겠읍니다. 이점 600여 회원 여러분의 최대공약수를 찾아 심사숙고하시리라 생각하며 미흡하나마 소견을 대신합니다.

깃발을 올리고 출항하자.

김풍수(실협 총무)

한인소매상들의 공동구매에 의한 협동조합 설립의 필요성및 당연성을 이젠 더 재론할 필요가 없다.

실협이 금년 3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나타난 통계에 근거한다면 회원을 포함한 토론토 인근의 한인가게를 1천개소로 볼 때 연간 2억8백만달러(1000×주 구매력 $4,000×52주)란 천문학적 금액의 구매력이다. 이것을 외국인 도매업자의 평균 총이익(Gross Margin)을 5%로 잡을 경우 $1천40만달러(2억800만×0.05)란 거액을 매년 이들의 주머니에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이중 최소한 우리의 협동조합을 열사람중 한사람만이라도 이용할 경우, 다시 말해서 총구매력의 10%만 흡수한다면 협회는 다만 운영에 대한 비용부담률을 1.5%만 남기고, 나머지 3.5% 이익을 직접 한인소매상에 되돌려준다 하더라도 연간 약 73만달러(2천8십만×0.035)란 거액이 결국 한인사회에 재투자된다는 귀결이다.

현싯점에서 수퍼마켓 내지 각종 체인스토어의 격심한 가격경쟁 속에서 계속 구매대중(고객)을 잃지 않고, 한인 가게가 생존할 길은 이 방법뿐 인줄 안다.

비단 인간사회뿐 아니라 약육강식하는 생물계에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과 보호책을 갖춘 작은 곤충이 오히려 힘쎈 동물보다 더욱 번성하고, 끝까지 살아 남듯이 비록 이민역사가 짧고, 소수민족인 한인들의 작은 기업체들이 합심단결하여 성장한 경제력이 결국 우리 2세들의 교육에 뒷받침이 되고, 각종 한인 장래를 위한 단체들의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기꺼이 회사될 때 우리도 장차 이 사회의 한 몫을 훌륭하게 이바지할 것이 아닌가?

한가지 보탠다면 실협의 공동구매가 현존의 2개의 한인도매업자와 경쟁이 아니고, 협력자로서 공존하는 발전의 길도 모색할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조합과 실협을 불가분의 관계로서 경영내지 운영의 실효를 거두고, 전문적인 경영인으로 하여금 창조적 의욕을 갖고 책임있게 소신껏 운영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주어야 한다.

또한 독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주들의 중지를 대표하는 기관(운영위원회)의 정기적인 감독하에 운영토록 하여야 할줄 안다.

작은 한알의 씨앗이 거목으로 자라듯이 우리들 Small Business가 모여 막강한 재력을 과시할 때 우리들은 어려운 시기에 함께 같은 배를 타고 항해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새삼 자랑으로 가슴 벅찬 날이 반드시 올 줄 안다.

이제 깃발을 높이 올리고, 출항할 준비는 모두 끝났다. 우리 모두 협동조합이란 상선을 타고 공동목적지를 향하여 힘차게 출항할 일만이 남았다.

K.B.A.교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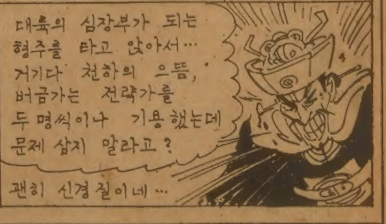
◆(1)Gift Glass Shelf(크롬 finished) 72" × 14" × 2개 2unit
(2)Cart Rack 2 Unit
(3)Gift Island Shelf (4'×4')+(1'×2')+(1'×2') 1 unit
(4)Rack & Glass Shelves 2 unit
759-6800(최철순)
(5)Show Case (5') 1 unit
276-5940(김)
◆아이스크림 캐비넷(Wall type)급구함.

Frito-Lay 칩스회사는 K.B.A.를 위한 스페샬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고 한다.
◉상품명—200g. Lays Reg.및 Ruffles Reg.
◉내 용—7c/s에 1c/s free
◉기 간—10월11일~11월26일
◉연 락—624-5050(Frito-Lay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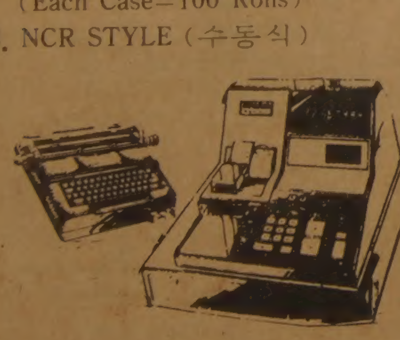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
해밀톤지점 ☎: 1-385-1485
서부지점 ☎: 243-9544

훼미리·닥터 (의사 왕운린)
(B) 968-1543. (R) 363-9196
600 SHERBOURNE ST. #402
월~금: 오전10시~오후7시
토: 오전11시~오후3시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SKYWAY BUSINESS MACHINES
SPECIAL 30% OFF FOR K.B.A. Members
1. 각종전자계산기 수리
2. PAPER ROLL (Each Case=100 Rolls)
3. NCR STYLE (수동식)



SHARP 3M, MITA COPYSTAR, IBM
SALES LEASING, REPAIRS & SERVICES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B)675-1295~6, (R)671-0938

공 고

정기총회소집

본 협회 회칙 제7조3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1982년도 정기총회를 소집 공고합니다.

— 아 래 —

일시 : 1982년10월22일(금) 하오6시

장소 : Inn on the Park Hotel, Centennial "D" Room (Leslie & Egliton)

안건 :
- 과년도 사업보고및 결산보고
- 감사보고
- 신년도 사업계획및 예산안
- 이사선출
- 회칙개정
- 협동조합정관 심의 통과
- 기타 토의사항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회장 차선겸

존경하는 실업인협회 회원 여러분

지상에 발표된 바와 같이 금번「상공인협회」발족에 대하여 실업인협회의 입장에서는 분열없는 교포사회의 분위기조성과 회원여러분들의 건전한 타사업전향에 의한 실협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유사한 단체의 발족을 만류하는데 저희들의 최선을 다하였으나 무위로 끝났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알려드립니다.

이제야말로 우리의 실협이 중단없는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다시 한번 머리 맞대어 우리의 조직을 분석하고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오는 22일은 우리 협회의 총회일입니다. 우리 모두 한자리에 모여 우리의 앞날을 개척하십시다.

1982년 10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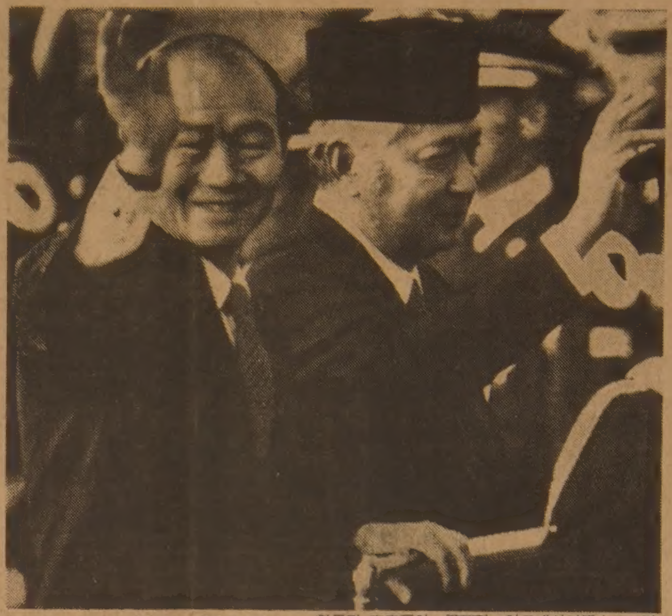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임원이사일동

내일 韓·印尼頂上회담

수하르토大統領 어제 來韓

開發경험과 資源협력 亞洲情勢등 광범論議

沿道환영 받으며 宿所로… 旅裝푼뒤 靑瓦臺예방



◇1년만에 再會…兩國頂上 한국과 東南亞의 强國인 인도네시아頂上이 전통적 友誼를 다지기 위해 1년만에 再會했다。 수하르토대통령이 16일하오 來韓한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함께 金浦공항 환영식에서 나란히 儀仗隊를 査閱하며 환영나온인사들에게 손을들어 답하고있다。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全斗煥대통령의 초청으로 3박4일간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하기 위해 부인 시티·하르티나 여사와 위조요·니티 사스트로 經濟調整相, 목타르·쿠스마아트마자 外相등 18명의 공식수행원과 함께 16일하오 3시30분 특별기편으로 내한했다。 이날 金浦공항에서 全대통령내외의 영접을 받은 수하르토 대통령내외는 환영나온 金相浹국무총리등 3府요인들과 악수로 인사를 교환한뒤 공항환영식에 참석했다。

수하르토 대통령은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査閱한뒤 金聖培서울시장으로부터 행운의 열쇠를 증정받고 花童으로부터 꽃다발을 받았다。

수하르토 대통령내외는 약 20분간에걸친 환영행사가 끝난뒤 全대통령내외와함께 沿道의 많은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숙소인 新羅호텔로직행, 여장을풀었다。

수하르토 대통령내외는 이어 이날하오6시 訪韓인사차 靑瓦臺로 全대통령내외를예방, 선물을 교환하고 잠시환담을 나눴다。

지난73년 修交이후 인도네시아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訪韓하는 수하르토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머무는 동안 全대통령과 18일 한차례의 頂上회담을 갖고 양국간의 우호증진을 위한 공동관심사와 韓半島를포함한 아시아정세및 국제정세전반에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頂上회담에서는 특히 한국과 아세안(東南亞국가연합)과의 유대강화 ?의한 太平洋국가 頂上회담의 실현문제를 비롯한 各분야에 걸친 협력증진방안이 중점적으로논의될것으로 보인다。

또 인도네시아가 資源富國이라는 점에서 인도네시아의 경제개발을 위한 우리의개발경험제공및 合作투자문제등이 폭넓게협의될것으로 보인다。

수하르토대통령은 離韓 2일째인 17일 국립묘지를참배한뒤 하오에는 昌原에있는 한국중공업공장을 시찰한다。

全대통령의 지난해6월 인도네시아방문에 대한 答訪으로 내한한 수하르토대통령은 訪韓에앞서 스페인과 미국을 공식방문했으며 오는 19일상오 離韓, 일본을 비공식방문한다。

수하르토 대통령의 공식수행원명단과 訪韓日程은 다음과같다。

〈公式隨行員〉 ▲위조요·니티사스트로 經濟調整相 ▲목타르·쿠스마아트마자外相 ▲수달모노 官房相 ▲에디 프라보토駐韓大使 ▲무르디오노 官房차관 ▲카르노대통령軍事보좌관 ▲주미랄蔵典長 ▲무나위르·샤드잘리政務次官補 ▲투슬리·누르 經濟차관보 ▲솝·아베 觀光차관보 ▲베니·무르다니情報보좌관 ▲삼부르노대통령官附屬室長 ▲기난자·카르타·사스미타官房相보좌관 ▲사타리외무성…

日、「歪曲시정」執筆者에 一任

檢定심의회 小委 한국要求 7항포함 11개項

侵略·3·1운동·神社참배·創氏改名등

【東京=宋孝彬특파원】 왜곡된 일본역사교과서의 시정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교과용 도서검정조사심의회 사회과부회는 15일하오 첫역사소위원회를 열고 한국정부가 시정을 요구한 ▲침략 ▲토지수탈 ▲3·1독립운동 ▲神社참배 ▲창씨개명 ▲조선어사용금지 ▲강제연행과 징용등 7개항과 중국의 ▲침략 ▲南京학살등2개항, 오끼나와(沖繩)관계부분 2개항등 모두11개항에 대해서는 문부성이 검정의견을 붙이지말고 집필자의 학문적연구와 양심의 판단에 맡기도록함으로써 歪曲부분에 대한 시정의 길을 터놓았다。

이결정에따라 교과서 집필자나 출판사가 교과서의 왜곡된 부분에대해 정정신청을 할 경우 문부성은 이를 인정해야만하게 됐다。

교과서검정문제에 대한 심의회의종합적인 결론은 11월중에 의견서의형태로 문부성에 제출돼 84년도분부터 적용된다。

심의회의원들은 近·現代史에 대해서는 아직 역사적평가가 정착되지않는 상태임을 강조하고 『역사적평가가…

空席인 中共主席에 李先念 임명하기로

홍콩誌보도

【홍콩AP合=聯合】 中共지도자들은 원로정치국원인 李先念을 지난67년 故劉少奇의실각후 현재까지 공석중인 국가주석에 임명키로 합의했다고 홍콩의 月刊百姓誌가 16일보도했다。

이 잡지는 두명의 국가부주석도 아울러 임명될것이나 이에대해선 아직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국가부주석 후보자 가운데는 故周恩來수상의 미망인 鄧穎超와 廖承志등이 포함돼 있는데 廖가 …어서 그의 중요한 임무때문에 부주석으로 가장 유력시되는 인물이라고 이 잡지는 보도했다。

4명 立候補…混戰

日 自民총재選出 單一옹립 오늘 다시 試圖

【東京=宋孝彬특파원】 집권自民黨은 새총재 선출을 위한 단일후보옹립에 실패, 16일 총재선거고공와 함께 나까소네(中曾根)행정관리청장관·나까가와(中川)과기청장관·고오모또(河本)경제기획청장관·아베(安倍)통산상등 4명이 입후보, 혼전을 벌이게 됐다。

다나까(田中)·스즈끼(鈴木)·나까소네등 주류3파는 나까소네를 추대하고 있으며 비주류는 3명이 난립하게 됐다。

이들 4명의 총재후보들은 당원에의한 총재예비선거를 실시해야 하지만 스즈끼, 후꾸다(福田)·니까이도(二階堂)각사장등 3자회담의 합의에 따라 ①앞으로 1주일동안 예비선거운동을 동결하고 ②3자회담의 단일후보 소정에 협력한다는 각서를 후보추천서와 함께 제출했다。

회담에 이어 당최고고문회의 幹4役회의를 각각열고 1주일안에 각파가 협력, 단일후보옹립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中小企業·자금 5백억 反映을

民韓, 追更심의指針

民韓黨은 16일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追更예산안 심의지침을 발표, 과다하게 계상된 소비성經費 全額을 재정投資예산에 충당하고 追更에 중소기업자금 5백억원을 반영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民韓黨정책심의회가 발표한 지침은 또 은행民營化에 따라 정부주식 賣却代金 4천56억원을 追更예산안 歲入에 계상, 내년도 歲入에 계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民韓黨은 또 예산회계법규정에 따라 稅外수입으로 81년도 歲計剩餘金 8백10억원을 韓銀借入金상환에 충당하고 제일은행 서울신탁은행등 정부株 매각이 年內로 되는 경우라도 그세입이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을 요하므로 새해 歲入예산으로 돌릴것을 요구했다。

金鉉圭정책심의회의장은 16일 『追更豫算案은 결함이 많은 본예산을 赤字國債에의한 보전한 방법으로 보완하려는것』이라고 지적, 『통화량을 묶어놓고 國債를 발행하면 결국 민간자금압박을 심화시켜 중소기업들만 자금압박을 받게된다』고 주장했다。

救助約定 추진

韓·日漁業委

韓日漁業공동위원회 제17차 정기年次총회가 16일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폐막됐다。

漁業공동위원회는 공동성명에서 韓日양국 漁業長의 회의가 사고방지에 유익하고 조기해결에 도움이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양국은 합동어로정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어민과 어업단체를 지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공동위원회는 海難구조와 긴급피난에 관한 約定의 체결을위해 빠른시일내에 정부간실무자협의를 개최키로 합의했음을 밝혔다。

성명은 또 한국측이 水産資源의 조성사업에 관한 기술협력과 상호 정보교환을 강화할 의사를표명했고 이에 일본측은 留意할 뜻을 밝혔다。

独立紀念館건립誠金

우리의 작은 精誠: 큰뜻 이루게

<16일접수>

접수電話 722-4171

▲星美纖維(株) 대표이사 李顯星씨外 임직원一同=1백14만9천9백17원 ▲서울무학국교이국헌교장외 전교생(대표6년 안홍호·이승진·전경애·5년 김문정·한성희·인숙 김재연교감일동(3차분)=1백8만8천65원【소년한국접수】 ▲여광물산(株) 대표이사 이원섭씨外직원一同=80만원 ▲鍾仁設備(株) 대표이사 李庚鍾씨=50만원 ▲道谷市場 임직원및 商人一同=29만원 ▲(충단) 대순진리회 서울신길동 제1지구 대표 김영자씨外 道人一同=17만5천원 ▲(충단) 대순진리회 서울대흥동지구 대표 전억간씨外 道人一同=12만5천원 ▲在日學徒義勇軍同志會회장 金完基씨外 서울회원一同=17만1천원 ▲오성무역(株) 직원一同=16만7천8백95원 ▲華城郡鄕南面杏亭里158 허철씨=10만원 ▲압착식용유 강남지부 회원一同=10만원【발안지국접수】 ▲銅雀區舍堂1洞29통장 김충현씨外 주민一同=9만7천5백원(1·2·3반 주민一同=4만3천5백원, 4·5반 주민一同=2만1천원, 6·7반주민一同=3만3천원) ▲大覺會公州世軒布敎院원장 全炳珍씨=5만원【公州지국접수】 ▲城北區貞陵4洞제10통장 李錫範씨외 주민一同=2만7천원【정릉보급소접수】 ▲松炭市新場1洞1통1반 황일용씨外 주민一同=1만원【松炭지국접수】 ▲京畿道華城郡杏南面 화성전매서장 장종권씨外직원一同=1만1천원 ▲華城郡八灘面芝月里 화성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회(회장 허명녀)회원一同=3만6천백원【발안지국접수】 ▲恩平區應岩洞244의211 尹喜善씨=2만원 ▲기독교대한감리회아름교회교우一同=1만7천5백원 ▲銅雀區舍堂4洞188의40 최선명씨=2만원 ▲아세아합영(株) 사우디支社 吉永旭씨=사우디貨1백리얄 ▲서울강남국교6년 반승아양=5천원 ▲서울강남국교2년 송윤재양=5천원【소년한국접수】

星美纖維(株) 李顯星대표 外 1백14만원

서울무학국교 이국헌교장 外 1백8만원

여광물산(株) 80만원

鍾仁設備(株) 50만원

道谷市場 임직원·商人 29만원

대순진리회 신길1地區 17만원

대순진리회 대흥동지구 12만원

◇서울무학국교대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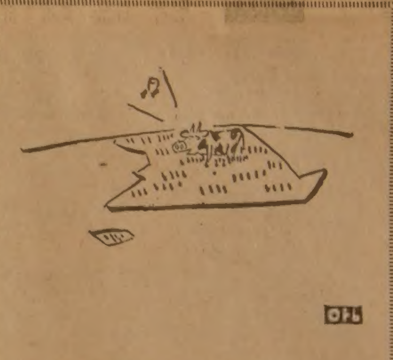
在日學徒 義勇軍同志會 17만원

오성무역(株) 16만원

華城杏亭里 허철씨 10만원

압착식용유 江南지부 10만원

社會漫評



무궁화三千里 草地江山…

地平線

스코틀랜드 고원지대에 산 켈트族의 언어 가운데 <SIUAGH>라는 단어가 있다。 死者의 군대, 즉 귀신의 大軍을 뜻한다。 이것이 「함성」이란 말과 결합되어 전투때 들려오는 죽은자들의 외침이라는 독특한 단어를 만들어 냈다。 표어 또는 구호의 뜻을 가진 슬로건(SLOGAN)은 고원지대 死者들의 무서운 함성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한 집단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목표는 슬로건에 담겨 표현되고 그 실현을 촉구하는 일이 많다。

▼공산당은 구호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공산주의는 슬로건으로 유지된다。 그것은 쉴새없이 가해지는 채찍질이다。 「새벽별보기」「千里馬운동」등의 구호가 난무했던 北傀집단엔 요즘 신종표어가 주민들을 몰아치고 있는것이 확실하다。 납북되었다 살아온 제5마산호선원들의 증언을 들으면 지금 북한땅 곳곳에 「배고픈 구호」가 널려 있음을 알게 된다。 「쌀은 공산주의다」。

▼이 표어끝에 북한공산당은 감조사를 덧붙이겠지만 우리는 의문부호(?)를 달아 볼수밖에 없다。 ▼쌀이 이데올로기란 말인가? 이것이야말로 죽은자들의 분노의 함성처럼 들리는 산자들이 외치는 기아의 절규다。 그러면서도 軍備에만 열을 올려, 결국 경공업 후퇴를 고백한 실정이다。 공산주의란 이젠 죽은 구호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배고픈 이데올로기는 무력하다。 만성적인 식량부족과 外債증가에 허덕이는 오늘의 東歐圈이 이 사실을 실증하고 있다。 폴란드의 교훈을 북괴가 언제까지나 외면할수는 없을것이다。

▼이번에 돌아온 67살의 老漁夫는 납북중 30여년간 헤어졌던 동생과 아들을 만났다고 말했다。 북괴는 이 비극적 再會마저 세뇌와 침투공작에 이용했음이 드러났다。 그리운 血肉과 다시 헤어진 노어부는 「제2의 離散」에 거듭 통곡을 터뜨렸을 것이다。 눈에 아른거리는 고향과 가족을 두고온 실향민들이 밤새 뜨거운 눈물로 벼개를 적셨을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거워지기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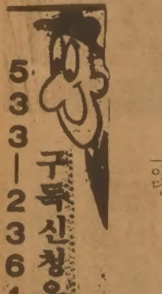
▼북한땅엔 납북어부가 아직도 431척 백60여명이 남아있다。 31척의 고깃배와 함께 이제는 생사조차 알수 없다。 離散의 고통은 갈수록 쌓인다。 만남이 없는 그리움은 종막이 없는 비극이다。 人道를 가로막은 분단의 설움은 통일로만 해소될수 있다。 「통일이여 어서 오라」。 그렇다。 통일은 우리손으로 앞당겨야 한다。 이것은 죽은자의 구호가 아닌 살아있는 민족의 대함성이다。

太局長

〔日程〕 ◇17일 ▲상오 국립묘지 참배 ▲獻花, 昌原도착 ▲하오 韓國重工業 昌原공장시찰, 駐韓인도네시아대사주최 리셉션 참석 ◇18일 ▲상오 金相浹국무총리접견, 靑瓦臺에서 全대통령과 정상회담 ▲하오 全대통령 내외주최 晩餐및민속공연참석 ◇19일 ▲상오 靑瓦臺로 작별예방 ▲상오10시20분 離韓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구독신청은 533-2361

한국일보 — 우리의 理想은 健全한 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가공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大韓航空만이 每週 23回 韓國으로 出発합니다.

뉴욕⟷서울 直行便 週4回 運航

매주 화·목·금·일요일 JFK공항 출발

로스앤젤리스에서는 서울로 매일 출발하며, 週4回(月·水·金·土)는 NONSTOP便을 운항합니다.

편명 / 출발일	KE011 月水金土	KE001 火木土日	KE015 火木日	KE050 月水金日	KE007 火木金日
뉴욕					23:55
로스앤젤리스	14:00	10:00	23:20		
앵커리지			▽		02:15 03:40
호노루루		12:20 13:20		02:20	
동경		16:10 17:20			
서울	19:00	19:30	06:40	06:50	06:30
도착일	火木土日	水金日月	木土火	火木土月	木土日火

편명 / 출발일	KE012 月水金土	KE002 月水金土	KE016 火木日	KE060 火木土日	KE008 火木金日
서울	16:00	18:00	21:30	20:30	18:40
동경		20:00 21:30			
호노루루		09:40 12:10		09:50	
앵커리지					08:10 10:40
로스앤젤리스	11:00	20:20	16:30		
뉴욕					22:20
도착일	月水金土	月水金土	火木日	火木土日	火木金日

▽앵커리지 급유 경유

*모든 시간은 현지 시간임. *본 시간표는 정부인가 조건이며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읍니다.

정성껏 봉사하는 우리의 날개— 大韓航空 KAL

★ 자세한 것은 대한항공이나 각 여행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 ☎ (416) 862-8250

390 BAY ST. SUITE 720, TORONTO, M5H2Y2

●서울여행사 535-6004 ●신세계여행사 536-2155

●제일여행사 535-2377 ●한국여행사 531-4607

아침한때

어리석은「점수따기 敎育」

大學入試에 日語붐…制度보완 아쉽다

鄭元植 〈서울大師大學長〉

지난15일자 한국일보에 충격적인기사가 크게 보도되었다. 대학입학학력고사를 앞두고 일부고등학교에서 문교부가 정한 법정 이수단위를 어기고 특정한과목만을 편중교육시키고있다는기사였다. 이를테면 영어를 배워야할시간에일본어를 가르치는 일이 예사롭다는것이다. 최근에 집계된 大學力考査 지원상황을 보면 일본어를 선택한 지원자가 전체의 17.3%인 11만6천5백40명에달한것으로 나타났다. 81학년도에 일본어를 선택한 지원자가 전체의 1.8%에 불과했던것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증가다.

줄어든 英語선택

반면 영어의 선택률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사실에대해서도 주목해야할 것같다. 거의 대부분의 지원자가 선택하던 영어과목에 대한 선택이 83학년도에는 76.4%로 감소된것이다.

얼핏 대수롭지 않은일로 볼수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외국어교육이 정해진 원칙을 떠나 편법으로 운영되고, 대입학력고사의 성적을 올리기위해 일본어선택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대로 웃어 넘길일이 아니다. 그렇지않아도 대학생의 영어실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것을 걱정하고 있는 실정에서 만일 고교의 외국어교육이 더욱 파행적으로 실시된다면 대학교육에 큰영향을 미칠것은 自明하다.

일본어의 실용적가치를 인정하지 않는것은 아니다. 엄연한 외국어이니만큼 선택의 대상이 되어야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일본어가 대학에서의 학업이나 학문연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대답을 유보하게 되는것도 사실이다. 역시 대학교육에서 기초적인 도구과목의 구실을 해주는것은 영어라고 할것이다.

대학생의 학업성적상태를 보면 이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은 어떤 학생인가? 물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본다면 그것은 지능이 높은 학생이라기 보다도 영어실력이 있는 학생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학생집단은 지능면에서 선택된 집단이며 일정한 수준이상의 지능을 가진 학생이기 때문에 학업성적에 있어서 지능이 그렇게 큰 비중을 가진 변수로서 작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에 영어는 대부분의 학문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인 도구의 역할을 하기때문에 전공학문에서 대단히 큰 무게를 차지하게 된다.

운영의 편협성

말하자면 대학의 성적과 영어능력사이에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도 영어능력에서 좌우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비유학생선발에 있어서도 역시 영어능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견되거나 예견될때 우리는 흔히 그것을 제도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다. 이번의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대학입시제도의 헛점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어를 선택하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준비가 가능하고 또 비교적 좋은 성적을 올릴수있다는 판단에서 일본어의 선택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인하여 다른 외국어의 선택이 격감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가지 깊이 생각해야할것은 제도를 탓하기전에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대입학력고사 지원생의 태도와 그들을 지도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편협성이다. 이제 겨우 그토록 과열되었던 과외공부의 열풍을 식히고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눈앞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점수따기 인간보다도 폭넓은 교양과 자신의 생애를 정정당당하게 설계하고 도전하는 눈을 교육해야하는 중등교육의 현장에서 만의하나 또다시 파행적인 교육이 자행된다면 그것은 심히 걱정하지 않을수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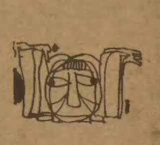
일본어를 선택하는 지원생들의 弊이 없는것도 아니다. 대학입시경쟁에서 이기려면 남보다 높은 점수를 얻어야 하고 그러자니 손쉬운길을 택하는것은 당연하다는 얘기다. 우선 대학에 입학한 뒤에 영어공부를 열심히하면 된다는 계산을 하고있는것이다.

눈앞의 이익만

물론 그러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히 해두어야 할것은 외국어의 학습이 하루저녁에 될수없을 뿐만아니라 쉬기를 했을때에오는 결손이 다른 어떤 과목에서 보다도 크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고등학교때에 영어공부는 하지않고 대학에와서 과해지는 대학영어를 따라갈수도 없으려니와 외국어습득에 있어서 적기라고 할수있는 중·고등학교시절에 일어난 결손을 여간해서 회복하기가 어렵다. 이점을 생각한다면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편법을 취하는어리석음은극력 피해야할것이다.

한편 대입학력고사제도의 운영 또한 보완해야할 점이 있다. 외국어시험을 제1, 제2로 구분하지 않고 골라잡아 한 개외국어만 테스트하는 제도를 고쳐야 할것같다. 또 고사성적의 총점을 단일점수로 사용하기 보다도 과목별성적의 辨別的適用을 신중하게 검토하는것도좋은 방법일 것이다.

예를 들면 총점만을 가지고 당락을 결정하기 보다도 지원학과에 따라 요구되는 과목이 있고 그과목의 점수가 일정한 비중을 가지고 선발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자는것이다. 그렇게되면 물리학과에 지망한 학생이 총점에서는 합격권에 들어갈수 있으나 물리과목의 좋지 못한 점수때문에 불합격이 될수도 있는 것이다.



大學자율에 맡겨야

이와같은 대입학력고사 점수의 辨別的適用은 그시행에 있어서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는것도 사실이다. 우선 어떤학과에 무슨과목을가중치를주어 반영하느냐 하는것을 결정하기란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획일적으로 정할수있는것이 아니다. 결국 대학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길수밖에 없다. 거시 획일적으로 정하여 규제하기 보다도 대학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그럼으로써 대학의 학과에 따라서는 총점만을 가지고 선발하는 학과도 있을 것이며 또 어떤 학과에서는 영어나 국어에 가중치를 줄수도 있을것이다. 이러한 辨別的適用이 선발과정에서 사무적인 일을 가중시키는것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입시가 [illegible]의 선발만이 아니라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인도하는 교육적기능을 수행해야할 책임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되어야할 일이다.

요컨대 고등학교 외국어교육에 이상이 오지않도록 제도의 운영을 보완하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더욱 강조하고 싶은것은 우리나라의 고교교육이 독일이나 미국의 고등학교처럼 눈앞의 손득에 민감하지않고 장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의연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시 교육은 장기적인 투자이기 때문이다.

메아리

루베式

국회가 열려 있으니까, 들리는것이 있어 좋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행정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얼생각하고 있는지를 조금은 알듯하다. 간간이 失笑거리까지 끼어들어, 깨알같은 국회기사지만, 별로 가독가를 하지가 않는다. 아니 할 말로, 국회가 아니더면, 수렴(收斂)아닌「수견」, 독직(瀆職)아닌「매직」, 만시지탄(晩時之嘆)이 아닌「면시지탄」이란 말을 어디가서 들을까.

그래서 국회기사는 심심치 않다.

15일의 밤 국회도 그런「거리」를 또 하나 추가 했다. 서울시의 보고가 부실하다고 해서 밤 늦도록 호령이 오간 內務委에서의 일이다. 지하철사고 에다, 漢江개수사업의 졸속을 나무라는 소리에 가려 버렸지만, 金聖培서울시장의 답변속에 이런 말이 나온다. 내가 직접 방청한 것이 아니니, 다음은 조간신문에서의 인용이다.

『漢江유역에서 앞으로 7천만 루베의 모래골재를 채취, 업자들에게 후턴키方式으로 맡겨 골재를 채취하는 대신 도로를 건설케 할 것이며…』

이말은 漢江개수의「綜合的·多目的 大役事」를 설명한 대목이다. 1천7백50억원을 들여 漢江을 개발한다는데, 그 비용은 강바닥을 긁어낸 모래와 자갈을 팔아서 충당할것이므로 시민들의 세금은 한푼도 들지 않을 것입니다—이런 생색이다.

시장을 다그치던 국회의원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그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골재를 파내 팔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골재를 얼마나 파낸다는 것일까. 그런 의문은「7천만 루베」의 단위를 모른 탓이다.

신문사 조사부에는 이런때 보라고 單位辭典이란것이 있다. 1천페이지가 넘는 분량이다. 東西古今 세상의 단위란 단위는 다 모아놓았는데 하필「루베」는 없다.

생각끝에, 서울시가 국회에낸 보고서를 찾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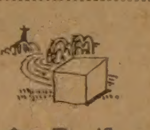
所要事業費란항목에「財源—골재 생산 추정량 7천만㎥」이란 외줄 설명이 보인다. 비로소 루베가 무엇인지를 알았다—기보다는 짐작이 간다.

삼식부호이란 참피를 무릅쓰고 겨우 알아차린「루베」란 이런 것이다. ㎥은 입방미터다. 한문으로 立方미터. 일본식으로「立方米」이것을 줄여 적어「立米」.「立米」가 혼자 서서 적어 다니기 시작하니까 일본 사람들의 발음도 독립하여「류베이」가 된다. 그것이 다시, 해방뒤의 文敎部 외래어 표기법을 따랐던지,「루베」로 昇華한다.

요컨대,「루베」는 우리나라에 없는 단위다. 그것은 일본말, 그것도 일본사람들 공사판의 막말이다. 적어도 국회에서 통용할 말은 못된다. 그런 말이 신문에까지 나온것도 민망한 일이다.

內務委의 추궁은, 이런하찮은 말꼬리 보다는, 漢江개수계획의 졸속 여부에 집중됐다. 시장은 애써 계획이 졸속아님을 설명했다.

漢江의 河床을 낮추는 경우 바닷물이 역류하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시장은 본디부터 漢江에는 바닷물이 역류하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길래, 10여년전만 해도 바다생선인 복매운탕이 幸州의 명물이었다. 産卵期의 복이 漢江大橋까지 올라왔음을, 漢江을 아는 사람은 안다.



金昌悅 〈編輯委員〉

그렇다고, 河床을 낮추어도 괜찮을까. 『예상되는 최악의 사태를 충분히 검토하여 보완하겠다』

시장은 1백40종의 漢江물고기에 대해서도 生態系변화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론이 들끓었던 汝矣島 생강의 매립문제는 아직 최종결정이 나지 않았다고도 했다.

시장의 국회답변을 통하여, 漢江개수의 여러가지 문제를 서울시가 인식하고 있음을 알만하다.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漢江개수공사를 기공하고나서 연발하는「검토」와「보충」은「미진」은 바로 계획의 졸속을 말함이 아닌가.

기사를 다 읽고나서「이것이 루베式이로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뭔가 엉성, 졸속의 잔재라고 생각되던 것이다.

서울市政이 그럴리야 없다고 생각하지만, 기왕「루베式」이라면, 漢江개수의 妙方이 없는 것은 아니다. 低水路에 소금물이 들어 오는「최악의 사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생강을 메워 택지로 팔고, 그돈으로 幸州앞에 河口堰을 쌓으면 된다. 本工事와 補完工事, 어느쪽 규모가 더 클지는 알수 없지만…

海外토픽

"노벨賞수여 고맙지만 拒否 / 賞金 汚染되고選定도 편협"

NYT서 가상人物내세워 非難

뉴욕·타임즈는 15일 가상 인물을 내세워 노벨상을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나(가상의 人物)는 나의 제4기 層位學연구에대해 노벨賞이 주어진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나 이를 거부해야만 한다.

이 賞이 가져다주는 상금이 심히 오염되어 있음을 관찰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알프레드·노벨은 탄약상인으로 치부했다. 이상의 수수에서 발생하는 거래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상에 영예를 부여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受賞者들이다.

나는 이상을 거부해야할 또다른 이유들을 갖고있다. 나의 발견은 15명의 동료들이 이룩한 연구결과를 약간 발전시킨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노벨재단이 나에게 부여해주려고 하는 영광의 상당부분은 나의 동료연구가들에게서 절취된것이다.

예술작품들에 대해 개별상을 수여하는것이 훨씬더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노벨위원회가 변덕스럽고 편협스런 판단으로 수상자들을 선택한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바있다.

노벨평화상에 관해서는 노벨의 이름으로 이 상을 기념함으로써 가해지는 모욕은 터무니없는 파라독스들중 하나이다.

노벨위원회는 역사적 판단을 얻기위해 수년간 이나마 기다리지도 않고 전쟁의 渦中에 개입되어 있는 정치인들과 한창 선전공세중인 외교관들에게 평화상을 수여했다.

◇걸리버 再現 파리의 포롬·데·올에 전시된 걸리버人形. 어린이들의 인기를 독차지 했다고. 【키스톤=聯合】

情夫살인에 벌금형

★1천弗 벌금내고 풀려나

아내가 말장수인 情夫와 동침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 격분한 나머지 情夫를 살해한 디어도어·그레고리라는 말조련사가 버지니아州 워싱턴재판소에서 1천달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 삼각애정살인사건에 대해 변호인측은 그레고리가 충동을 못이겨서 범행했기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측은 그레고리가 두사람이 정사를 벌이고있는 말장수의 오두막집으로 따라갔을때 이미 살인의도가 있었다고 주장.

6명의 여자와 6명의 남자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그레고리의 범행이 自衛에의한살인이 아니라고 결론, 판사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이같이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워싱턴(버지니아州)=UPI】

골목서 玉童子순산

★姙婦가 의사불신 脫出

출산을 위해 병원에 입원한 임산부가 산부인과 의사들을 못믿겠다면서 환자복을 입은채로 병원을 탈출하여 빗골목에서 마침내 예쁜 옥동자를 낳았다.

美시카고 시에 사는 조이스·브라운 부인(25)은 빗골목에서 순산한뒤 비명을듣고 달려온 경찰의 도움으로 다른병원에 입원했는데 산모와 신생아 모두 건강하다. 【시카고=UPI】

◇박살난 加미사일 유도체공장 터론토시교외의 크루즈미사일 유도체제생산공장앞에서 15일 트럭에 장치한것으로 보이는 폭발물이 터진후 경찰이 현장의 잔해물을 조사하고있다. 이 폭발로 리톤·시스팀즈·캐나다社공장의 전면부분이 파괴됐고 수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터론토15日AP電=聯合】

佛、中性子彈 생산키로

NYT보도 세계 2번째 美서 支援

【뉴욕·파리AP·UPI=聯合】프랑스는 미국의 기술지원을받아 중성자탄을 생산하기로결정, 이 사실을 곧 발표할것이라고 뉴욕·타임즈紙가 15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즈紙는 이날 파리發기사에서 프랑스가 중성자탄생산결정 사실을 서방동맹국들에 비공식으로 통보했으며 공식발표를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이같은 뉴욕·타임즈紙의 보도에 대해 프랑스가 당장은 중성자탄을 생산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남부프랑스군사기지에서벌어지고있는 지상군 기동연습을 참관중인 미테랑대통령은 뉴욕·타임즈紙의 보도에 관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대통령인 나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생산할수 있도록 중성자탄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라는 지시는 내려져 있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때문에 중성자탄생산을 위한조처가 취해지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또 프랑스국방성의 한 대변인은 프랑스가 중성자탄에 관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중성자탄을생산할 계획이 없다고말했다.

프랑스국방전문가들은 프랑스가 중성자탄 생산결정을 내리는 경우 이는 프랑스핵전략의 주요한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성자탄을 생산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중성자탄은 피해를 좁은 지역으로 국한시킬수 있다는 특성때문에 소련이 西유럽에대규모탱크공격을 감행할 경우 이에 대응할수있는 최상의방어무기로 생각되고 있다.

폴란드의 自由勞組해체에 3일째 抗議示威

【바르샤바聯合=聯合】수백명의 폴란드人들은 15일 크라쿠프 인근의 이나라 철강단지 노바후타에서 당국의 자유노조 해체조처에 항의하는 격렬한 시위를 연3일째 계속했으며 폭동진압경찰은 시위를저지하기위해 최루탄·소방호스및충격탄등을사용한것으로전해졌다.

이와때를같이해바르샤바의 지하소식통들은 지하운동세력이 내주 바르샤바 그다니스크및 크라쿠프등 나라의 주요도시에서 새로운형태의 노동자파업을 일으키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爆發事故 9명부상

加誘導體制공장

【터론토AP·UPI=聯合】15일 0시께 캐나다의 터론토서교외의 크루즈미사일유도체제생산공장앞에서 테러분자들이 트럭에 장치한 것으로 보이는 폭발물이 터져 2명의 중상자를 포함, 9명이 부상했다고 경찰이 발표했다.

폭발사건이 발생한 이공장은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리톤社의 자회사인 리톤·시스팀즈·캐나다社 소유로 토마스호크 크루즈미사일이 적의레이다망을 피해 저공으로 비행하도록 유도하는 정교한유도체제를 생산하고 있다.

印정부 발표 / 2萬2千여명 政治犯 석방

【뉴델리UPI聯合=聯合】인도의 푼잡州정부는 인디라·간디수상의 충고에따라 2만2천명의 시크教徒정치범을 석방하도록 지시했다고 정부대변인이 16일 밝혔다.

그러나 체포된 시크敎지도자 하찬드·싱·롱왈은 그의 추종자들에게 그의 지시가있을때까지 감옥에서 나가지말라고 명령했다고 PTI통신이 보도했다.

정치범석방지시는 지난11일 인도의회 의사당앞에서벌어진 시크敎徒시위때 경찰이 발포, 4명이 사망하고 수명이 부상한 사건에 항의, 여러곳의 감옥에서 시크敎徒죄수들이 폭동을일으켰다는 보도가 있은직후 발표됐다.

對蘇곡물 輸出증대

美, 2千3百만톤限

【워싱턴AP·聯合=聯合】레이건 미대통령은 15일 83곡물연도중 미국의 對蘇곡물수출한도를 2천3백만톤까지 늘릴수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발표했다.

레이건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한 방송연설에서미국농부들에게 안정된 곡물수출시장을 보장하고 미국의밀을 믿을만한 곡물공급국이라는 점을 입증하기위해 이같이對蘇수출한도를 증가시키게된 것이라고 말했다.

호메이니補佐官 에스파하니爆死

【런던UPI·聯合=聯合】이란 최고실권자 루홀라·호메이니옹의 측근보좌관인 아시라피·에스파하니옹(83)이 15일 무자헤딘 게릴라의 수류탄공격으로 폭사했으며 그와함께 있었던 아들은 부상했다고 이란 관영 IRNA통신이 보도했다.

美, 퍼싱Ⅱ西獨배치

83年末까지 百8基

【본AP=聯合】미국은 소련과의 유럽배치핵무기 감축협상결과에 관계없이 서독에 퍼싱Ⅱ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서독시사주간지 슈테른 최신호가 보도했다.

이 잡지는 미군고위소식통을 인용, 美蘇핵무기감축협상이 성공할경우 사정1천8백㎞인 퍼싱Ⅱ대신 사정7백40㎞의 퍼싱ⅡR미사일이 서독에 배치될것이라고 말했다.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 컴퓨터·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역활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활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주택
1. 마캄 & 윈치—4 Br.Rm. 방갈로. 잘 꾸며진 지하실. 싸우나. Fire Place 가격: 12만4천9백불
2. 세퍼드 & 빅토리아 팍. 4 Br.Rm. 2층쎄미. 교통좋고 학교 가까움. 처음 사시는 분에겐 최적. 가격: 10만5천불.
3. 에그링톤&빅토리아팍. 3 Br.Rm. 콘도미니움. 수영장. 테니스 코트. 시내 가까이 좋은 주위환경. 학교 쇼핑센타 가까움. By Builter — 케디락 페어뷰에서 지었음. 가격: 6만2천9백불
4. 돈밀스 & 로렌스. 3+1 Br.Rm. 방갈로. 고급주택가. 학교, 쇼핑가까움. 10¼% 몰게지. 좋은 환경. 잘 꾸며진 지하실. 가격: 13만9천9백불
5. 블루아 & The East Mall. 4 Br.Rm. 방갈로. 넓은땅. 100×160. 교통편리. Fire Place. 가격: 17만5천
★드라이크리닝
1. 주매상: 2천6백. 렌트: 월 $1,000 3년. 순수입: 월5천 가격: 9만불
2. 주매상: 1천5백. 렌트: 월 $1,600 5년+5년 가격: 7만불
3. 주매상: $1,100 렌트: 월 $1,100 5년+5년 가격: 4만불

황용현 286—1548(R)
이헌영 686—0207(R)
강정숙 244—8918(R)

★도넛츠숍
1. 주매상: 5천5백. 렌트: 2천7백. 1년. 10년옵션. 13만불 다운. 가격: 19만9천
2. 주6일(일요일 닫음) 하루 12시간만 하는 도넛츠숍. 연 순수입: 5만불 가격: 12만5천
★Hunts 베이커리
쇼핑센터내에 주매상: 4천5백. 3만불 다운. 가격: 13만5천
★쇼핑몰내에 Fish & Chips
주매상: 약8천. 렌트: $2,291.66 4년. 15만불다운. 가격: [illegible]만불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4천5백, 5천5백, 6천5백, 1만4천, 1만6천.
★가게딸린 건물
주매상: 3천, 5천, 6천, 7천, 1만천.
※그외의 여러 곳의 땅과 투자용 건물에 관한 문의하세요.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TEL(416)449—8644~5(B) · 286—1548(R) M3B 1Z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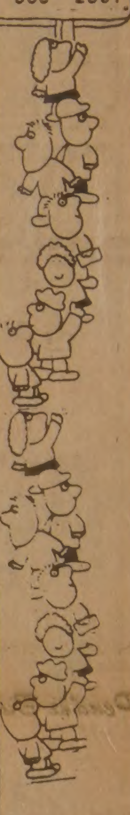
맛사지

DIXIE HEALTH STUDIO

한국일보

특집판

구독신청 533-2361



診斷 完工은 급하고 財源은 쪼들리고… 뒤로밀린 「安全」

防災의식不在가 禍불러

李揆榮 <41·防災공학박사>

지난4월의 峴底洞 지하철사고 원인이 발파공법을 통해서만 암반굴착을 해야하는 우리의 기술현실과 발파엔지니어링의 부재에 있었다면 이번 瑞草洞의 사고도 조금도 진보되지 않은 발파방식과 개선되지않은 뒤처리습성이 빚어낸 것이라고 볼수있다. 공사관계자들이 아직도 이같은 사고를 단순히 있을수 있는 사고라거나 재수없어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안될 것이다. 이대로 방재의식 부재상태가 계속된다면 사고가 연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西小門사고이후 각종안전조치가 취해졌다. 공사구간 1백m마다 순찰함을 설치, 안전여부를 매일 보고하고 현장소장과 감독은 하루 2회이상 점검을하며 시공업체대표도 주1회 현장을 순찰하고 현장직원을 자주바꾸지 말도록 했다.

또 위험성이 높은 연결발파를 지양하고 철제파일의 밑바닥과 인접한 부

잦은事故 원인

분에서는 발파하지 말고 착암기로 굴착할 것등이 84개 전공구에 지시됐었다. 이같은 지침은 지금 방재의식의 습관화에의해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 지침과 실제작업이 동떨어진 상태라면 위와같은 지침은 공념불에 불과할 것이다.

지하철공사현장을 둘러본 필자로서는 우리의 공사가 지나치게 日本式위주라는 인상을 받았다. 많은 지하철공사관계자들이 공기단축과 공비절감을 위해 발파에의한 암반굴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日本도 이같은 개착식공법을 丸內線의 83%, 日比谷線의 73%에 적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개착식공법은 꼭 발파를 통해서만 암반굴착을 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日本의 기술을 참고하는 차원을 넘어설수 없는 것일까.

岩質분석 발파하고 架設物점검 필요
암반굴착기 비싸도 긴眼目선 經濟的

日本의 공사기기·공사기법을 그대로 쓰면서 그들이 소화하지 못한 기술을 쓰는것은 불가능한 가설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것이 문제인것같다.

공사비에 있어서도 日本보다 1㎞에 30~40% 싸게 책정돼 있는데 이단가는 정거장등 시설물을 제외한 안전스테이션부문을 소홀히했기때문에 낮게 책정된것이 아닌가 싶다. 美國 獨逸 스웨덴 이라크등지에서진행중이거나 이미 끝난 지하철공사에대한 단가조사가 충분히 선행됐는지 알수없지만 조사됐다 하더라도 충분히 참작했는지도 의문이다. 그들은 시내 지상교통을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면서 사고발생률이 높은 개착식을 쓰지않고 사고발생률을 최저로 낮추면서 작업을 하는데 우리의경우 ㎞당 견적단가도 싸고 공기도 훨씬 짧게 돼있다.

美國에서는 임반굴착기 (Rock excavator)를 사용하는등 터널링기계를 도입하고 있다. 장비가 비싸 임대를 해야하고 초기투자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점등 흠이 있긴 하지만 이번 지하철공사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지하도망 지하도시등 지하문물권(地下文物圈)을 형성해야 한다는 미래청사진을 감안하면 오히려 경제적인 투자가 되지않을까 생각된다. 발파를 하지않고 암반을 뚫는 것만큼 방재측면에서 완벽한 터널굴착공법은 없겠기 때문이다.

6월부터 10개 공구에서 나틈(NATM) 공법을 쓰고 있다. 峴底洞사고이후 대형사고를 예방하기위한 최대의 조치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도하다. 멀잖아 이공법의 장단점도 명백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공법은 쉴드(Shield) 공법의 개량이며 폭약을 쓰지않는 것도 아니며 발파공법을 깡그리 개혁, 방재의식을드높이고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완전한 공법도 아닌 것이다.

그러나 발파공법을 쓰지 않을수 없는 처지라면 아래와같은 점을 반드시 지켜야할 것이다. 이 사항들을 제대로 지키면서 방재의식을 높여간다면 저개발국가에서나 있음직한 성질의 사고는 모면할수 있을 것이므로 다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먼저 발파의경우 암질을 정확히 조사, 발파할 것은 물론 사후점검요원이 발파후 H빔등 공사장가설물의 변화상태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폭약보관창고는 법정규격대로 짓고 그 장소가 고압전기 나전기(裸電氣) 정전기및 괴뢰(壞沒) 습기·화기로부터 보호될수 있도록 해야한다. 종류가 다른 폭약을 한창고에 저장해서도 안되고 창고안에 금속공구나 전동기를 두어서도 안된다. 그리고 폭약을 꺼낼때 15m이내에서는 다른종류나 같은종류의 폭약을 열지말 것이며 다시 포장해서도 안된다. 폭약통을 뜯는경우 나무로된 쐐기를 써야하며 화약가루가 드러나게 해서는 안된다. 불이 필요할때도 전기랜턴이나 전기조명등 이외의 것을 쓰면 안된다. 그리고 창고문을 열면 자동경보가 되도록 해야한다.

운반할 때도 요동이 심한 트레일러나 지프에 붙은 트레일러에 실어서는 안된다. 폭약과 퓨즈 또는 뇌관을 별도로 적재하되 주차장, 빌딩내의 주차장및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회전하는 물체 옆에 주차해서는 안된다. 시속 60㎞이상 달려서는 위험하므로 속도를 늦춰 달리되 급정거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반드시 3차선으로 주행해야 한다. 또 운반차량은 주거지를 통과하는 경우 한적한때를 이용해야 할 것이고 폭약적재표시를 함으로써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등도 긴요하다.

위에 열거한 것들은 방재적 측면에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조치들이지만 폭약취급및 관련자들이 방재의식을 기준으로 판단,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해야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공사장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발파하자」고 써붙여놓고 발파작업을 하고있다. 공공교통의 여건을 크게 개선하기 위한 지하철공사에서는 결국 방재의식을 진작하는것만큼중요한일은 없으며 방재이론을 도입한 공법만이 문제를푸는 최선의 해답공법(解答工法)이 될것으로 믿는다.

地下鐵…어떻게 돼가나

完工땐 交通人口37% 5百萬수송

교통난은 세계 주요도시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서울의경우도 예외없이 통근·통학때를 비롯 모든 도시교통수단의 혼잡도가 극에 이르러있다. 이에대한 근본적대책은 지하철도건설을 촉진, 수송력을 증강시키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게 정설이다. 「인구 1백만이 넘는 거대도시에서는 지하철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교과서문장처럼 돼있다. 1863년 1월10일 英國런던에서 처음 생긴 지하철도는 그뒤 1백20년의 역사를 통해 노선의 배치로부터 건설기술·각종설비·차량운전등에서 ▲고속 ▲안전 ▲일시의 대량수송 ▲운임의 저렴화 ▲승차감제고등을 위해 쉼없이 노력, 발전해왔으며 각국의 주요도시는 앞을다투어 지하철을 건설중이다.

지난71년 처음 착공된 우리나라의 서울지하철은 현재 완공된 노선연장 23·8㎞에 1백40량의 차량으로 하루 85만명을 수송하고 있다.

건설중인 2·3·4호선이 모두 완공된 85년부터는 1호선을포함 총연장 1백20·6㎞로 하루 5백만명을수송, 서울 교통수단의 주축을 이루게 된다. 85년의 하루교통인구를 1천3백40만으로 잡을때 37·2%를 떠맡게 돼 서민교통의 중추역할을 해온 시내버스 (32·8%)를 앞지르게 된다.

82년현재 교통수단별 수송분담률은 시내버스가 65%, 지하철9%, 택시18%, 자가용8%로 특히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할수없는 택시가 20%를 육박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전인구의 23%에 이르는 8백60만이 몰려사는 서울에서 지하철건설은 사실 때가 늦었다는 지적이 많다. 지하철건설이 어차피 도시교통의 당면문제를 해결하면서 도심부재개발·과밀화방지및 부도심·위성도시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1호선만을 공사중이었던 10년쯤전에 지하철망이 완비됐어야 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교통정책으로 말미암아 이미 적기는 놓쳤고 쫓기듯이 서울시전역의 땅을 파헤쳐가며 공사를 진행중이다. 85년 완공목표인 2호선 (시청앞~江南~良才洞·48·8㎞)을 83년으로 2년이나앞당기는등 공기상의 문제이외에도 건설의이익이 균점되기 어려울만큼 변두리지역의 지하철역인근이 이미 개발된데다 보상비압박이 커졌고 공사비조달도 어려운 실정이다.

2·3·4號線 96·8㎞·工程점검

서울지하철건설의 모든 난제와 고민은 실로착공이 늦었다는데에서 비롯되는것이다. 기술축적결핍·안전시공소홀등은 그다음의 문제일수도 있다.

여기서 외국의경우를 살펴보자. 현재 건설중인것을 제외하고 앞서 말한 런던을 비롯한 세계51개 주요도시에서 지하철이 운행중이다. 美國은 뉴욕(1868년~1908년)등 8개도시, 프랑스는 파리등 2군데, 西獨의경우 베를린등 5개도시가 운행중이다. 가까운 日本은 지난27년東京에 31㎞가 건설된이래 6개도시에서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건설시기상의 차이는 지하철건설이 다른 모든 사회적여건과 관련돼있는 것이므로 비교할 처지가 못된다하더라도 건설기간에서 우리와 적차가 난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의 지하철 2·3·4호선은 외국에비해 훨씬 어려운 여건아래서 건설되고있다. 우선 한꺼번에발주를 해놓았다는 점, 그리고 공사기간이 너무 촉박하게 잡혀있다는 점을 지적할수 있다. 길이 48·8㎞인 2호선은 6년만에 끝나게돼있고 57㎞인 3·4호선은 겨우 4년이다.

1㎞건설에 1년6개월이 걸린 西獨본이나 1년이걸린 프랑스 파리에비해 너무짧다. 日本 東京6호선의경우 21㎞건설에 7년8개월이 걸렸다. 2·3·4호선 1백11㎞를 거의 동시에 건설하는것은 서울시의 자랑대로 세계토목공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서울시에 의하면 2·3·4호선공사를 한꺼번에 하게 된것은 서울시정을 서울시단독으로 펴나갈수 없는 현실적인 고충때문이라는 것이다.

공사비도 적다. 지하철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은 2조3천2백65억원. 서울시1년예산의 2배이며 시민들이내는 각종세금의 4년치에 해당되는 규모다. 그러나 1㎞에 2호선은 1백93억원, 3·4호선은 2백42억원꼴로 돼있어 시기적으로 1년전에 건설된 東京 11호선의 ㎞당건설비 6백85억원에비해 3분의1에 지나지 않는다. 東京은 서울보다 시질이 더 나쁘고 지하수가 많이 나는데다 耐震설비까지 해야하지만 이같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서울의 공사비는 너무적은 편이다.

계획당시를 기준으로한 2·3·4호선의 건설비는 당초 1조1천1백억원이었다. 그러나 이는 물가상승률을 최저로 잡은 것이었기 때문에 착공직후부터 재원이 모자라는 형편이었고 사업비 계산이 나와 다시 산출, 계획당시의 2배가 넘는2조3천2백65억원으로 늘려잡았다. 그리고 이 액수도 많이 유동적이다.

이같은 건설비를 충당하는데는 지하철공채·公社債발행및 시민들의 세금과 국내외의 자금을 끌어 모으고도 1천7백67억원이 모자란다는 것인데 이 부족재원의 확보방안이 아직 불투명하다. 서울시의 전재정이 이에투입돼있어 다른 대규모사업은 자연히 위축된 상태다.

건설비의 조달방법도 시비부자22·5%, 국고보조및 민자 5·5%등 27·8%가 자기자본이고 나머지 65%는 공채·재정차관및 외국차관들에 의지하고있어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1천7백67억원이라는 것이다.

이같이 엄청난 재원을 서울시가 자체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다는 것을 정부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외국의경우 지하철건설은 국가사업이라는 범세계여론 아래 런던은 75%, 뉴욕 60%, 파리 50%, 東京 70%등을 보조했으나 서울은 국비보조가 명목에 불과한 2%라는 점에서 서울시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할수 있다.

◇80년 10월31일에 개통된 2호선 1단계구간. 서울시지하철은 2、3、4호선 공사가 모두끝나는 85년이후에는 서울교통인구의 37%를 지하철이 실어나르게돼 대중교통수단의 주축을 이루게된다.

◇지하철건설 기본계획

구분 \ 노선별	총 괄	1호선(鐘路線)	2호선(순환선) 본선	2호선(순환선) 지선	3호선	4호선
기 종 점	4개노선	서울역~淸凉里	시청~江南~시청앞	新設洞~聖水洞	舊把撥~良才洞	上溪洞~舍堂洞
길 이 (㎞)	120·6	9·5	48·8	5·3	27	30
정 거 장	102	9	43	3	23	24
차 량	638	96	272		132	138
운 행 時 隔	— 분	3	3·5		3·5	3·5
건 설 기 간	71~84	71~74	78~83		80~84	80~84
수송인원(日)	500만	100	150		120	130
공 정 (%)		완 공	76·1		41·8	41·8

地下鐵 日誌

◇서울지하철 주요 일지

▲70·6·8=서울지하철 건설본부발족 ▲70·11~12=노선확정 측량·구조물 설계및 지질조사 ▲71·4·12=1호선 건설 착공 ▲74·8·15=전구간 개통, 운행시작 ▲77·10·6=2호선건설계획발표 ▲78·1·4=지하철공채 발행시작 ▲78·3·9=2호선 江南구간 30㎞착공 ▲78·12·4=3·4호선 민자건설계획 승인 ▲79·2·15=2호선건설기간단축 (85년완공에서 83년으로) ▲79·3·17=2호선 江北구간착공(聖水洞~往十里) ▲79·4·17=지하철도건설촉진법 제정 ▲79·10·13=동 시행령 제정 ▲80·2·5=지하철건설주식회사 (3·4호선 건설) 창립 ▲80·2·26=2호선江北구간 (往十里~文來洞) 착공 ▲80·2·29=3·4호선 착공 ▲80·10·31=2호선 1단계 (新設洞~종합운동장) 개통▲81·9·1=지하철公社발족。

지금까지 20명이 목숨잃어
百年앞보고 완벽工事 해야

선진외국의경우 도심구간의 공작공사때에는 붕괴사고나 인근건물의 피해를예방하기위해 흙막이판(土留板)을 설치하는대신 처음부터 지하에 콘크리트벽을 만들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있다. 서울에서도 이같은 공사를한다면 2·3·4호선 전체 84개공구마다 30~40%의 공사비가 더 들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흙막이판에 미치는 토압(土壓)을 줄이고 지하수가 외벽에스며드는 위험을막을수있는 JSP (Jumbo Special Pile)공법은 지반이 극히 취약한곳에나 겨우 적용될뿐이며 주변건물의 지반침하를막을수있는 연속지중벽 (連續地中壁) 설치도 대부분 외면당하고 있다.

관파자재인 복공판은 공사장 전구간 소요량의 60~70%에 불과하고 파일과 빔은 가설했다가 되빼다 다른공사장에 또 써야하는 실정이다. 14m짜리 파일1개의 무게가 9백15㎏인데 톤당가격이 28만원이고보면 2m간격으로 1㎞구간에 묻는 파일값만해도 2억8천만원어치가 넘기때문에 외국처럼 공사가끝난후에도 그대로 묻어둘수없는 형편인 것이다.

이같은 여러 여건속에서 당연히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된다. 1호선 공사때 9·5㎞에서 이미 20명이 숨졌고 2호선은 지금까지 10명, 3·4호선은 지난8일 瑞草洞 사고때의 5명을 포함해서 20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하철공사는 외국에서도 사고가 잦다. 東京 1호선의 경우 59년부터 68년까지 10년동안 18·5㎞를 건설하면서 크고 작은 1천2백8건의 사고가 발생, 32명이 목숨을 잃었다. 서울의 사고는 1㎞에 1·7명꼴이다. 서울의 사고건수는 다른 나라 도시보다는 적은편이며 1호선때보다도 2·3·4호선에서 인명피해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감독과 안전진단및 안전에 대한 현장근무자들의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을 것이다.

지하철공사장 사고는 이같은 인명피해말고도 재산상의 피해도 크다. 여러가지 공사가 혼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발생하면 복구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되며 도심의경우 교통문제가 한꺼번에 나타난다. 지난 4월8일의 무악재사고때는 복구비 35억, 복구기일 23일이 필요했고 7월1일의 西小門사고때도 2억4천만원이 들었다.

2·3·4호선 건설은 도로를파서 복공판을 덮는식의 개착식이 전체1백5㎞의 59·7%인 63㎞, 고가구조식이 21%인 22㎞, 터널식이 19%인 20·3㎞로 돼있다. 이중 터널식공사를 벌이는 10개공구에는 지난 6월부터 가장 안전하고 최신의 공법이라는 나틈(NATM)을 도입, 시공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공법의 도입이 모든것을 해결해주는 안전판일수는 없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노선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왔고 대형사고 공구의 업체에는 시에서 벌이는 공사에 입찰자격을 주지않기로 하는등 온갖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기가 하루 늦춰지면 2호선의경우 하루5천3백만원, 3·4호선은 1억5천만원씩의 추가금리부담이 시민에게 돌아가게돼있는 마당에 안전은 실상 뒷전으로 밀리기 쉽게돼있고 「절대공기를 지키되 안전사고도 없어야한다」는 모순이 빚어지게되는것이기도하다.

서울시는 2·3·4호선이 끝나면 재정형편이 허락하는대로 5·6·7·8호선의 건설에나설 계획이다. 계획된 노선별구간은 ▲5호선=清凉里~경기南楊州郡渼金邑陶農里(12㎞) ▲6호선=佛光洞~龍山(13㎞) ▲7호선=金浦공항~文來洞(14·5㎞) ▲8호선=千戶洞~城南市(19㎞)등이며 이 공사까지 모두끝나면 지하철의 수송부담률은 45%까지 높아지게된다.

그러나 이같은 추후건설계획을 마련하는 일보다 현재 건설중인 2·3·4호선을 완벽하게 안전시공하는것이 절실하다. 1백20년전에 개통된 뉴욕지하철이 일부 시공잘못으로 그동안 3백억달러의 보수비를 투입한 사례를 보더라도 백년앞을 내다보는 영구시설물로 건설돼야 하는것이다.

현재 2호선은 76·1%(연말목표 83·9%) 3·4호선은 41·8%(연말목표 50·5%)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2호선은 한고비넘겼지만 3·4호선은 지금 가장위험한 시기에 이르렀다. 대형사고가 올해보다 내년에 더 적게일어날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무악재·瑞草洞등의 사고는 이같은 위험성을 알리는 적신호이다. 서울시·지하철公社및 84개공구의 땅밑에서 일하는 1만8천여명 모두가 이 신호의 의미를 저버려서는 안될 시기에 이르러있다. 【任喆淳기자】

● 백학같이 우아한 미!
●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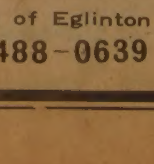
웨딩 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청첩장등.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결혼을 위한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하신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실비아·원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바르고 빠른 소식을 전하는
한국일보 구독신청 ☎:533-2361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중국인경영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721 Bloor St. W.
크리스티 써브웨이)
530-1222 Mr. 왕
536-6250 호세환

중국 레스토랑
Golden China
(식당 겸 술집)
⊙바베큐 전문(오리 등등)
⊙홍콩 전문요리사로 칸토니즈 음식.
⊙Dim Sum.
195 Dundas St. W. (던다스×유니버스티)
☎ : 977-3777 (오전10시-새벽1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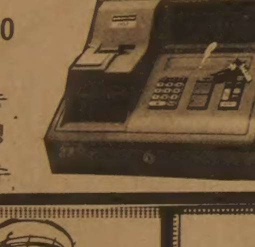
Richard Y.K Wong
Insurance Broker
보 험
⊙자동차 보험
⊙주택 보험
⊙상업(가게 · 레스토랑등)전문
312 DUNDAS ST. W. TOR.
(B)977-4057 (H)461-7769
Registered Insurance Broker 리챠드 · 왕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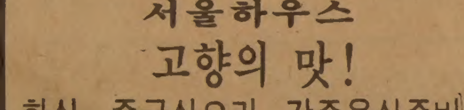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동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거구장
결혼 · 회갑 · 생일잔치 ·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 : 김미리자 BAND-기타 : 신상철
올겐 : 함효상
드럼 : 권순근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SPECIAL
6주년 기념
SANYO
$595.00
분납 가능
교포 경영
김 성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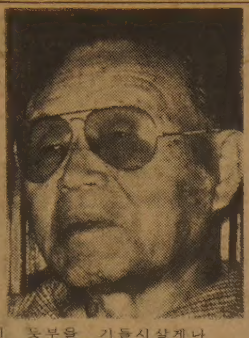


서울하우스
고향의 맛!
한식, 중국식요리 각종음식준비
짬 뽕 · 냉 면
짜장면 · 잡탕밥 전 문
615 BLOOR ST. W. ※일요일은 휴업
☎ : 532-0602 김 신우



"12年만의 海外나들이"

尹潽善 前대통령 오늘 歐美방문길



5分間 인터뷰

海葦 尹潽善 전대통령이 15일 5주간의 예정으로유럽과 美國 방문길에 오른다。12년만의 해외 나들이자 60여년만에 母校를 찾는 感懷깊은 여행길이다。

『70년에 잠시미국을다녀온뒤 해외여행은 12년만이지。먼길 떠나기 전날밤은 조금은 마음이 들뜨게 마련인데 왠지 차분한 마음이야』 14일밤 손수 짐채비를 하던 尹전대통령은 지그시 눈을 감으며 말문을 연다。

『오래전부터 해외에 나가볼 생각은 가졌으나 그동안 싸우는데 힘을쏟다보니 좀처럼 틈이 나지 않더군。이젠 상대도 없고해서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봤으나 나이탓인지 주춤주춤하게 돼。그러던터에 美國에 살고있는 큰애 부부가 잠시귀국해 모처럼의 해외나들이를 함께하자권해 나서기로했지…』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업을 하는 장남 商求씨(34)부부의 「孝道관광」임을뿌듯하게 들려준다。

『우선 英國을 가자고했지。60년만에 母校(에딘버러대학)를 찾는셈이야。아직도 서신왕래가있는 몇몇 친구가 있어。모두가 白髮이 됐거나 허리가 굽어졌을거야。동창들이 환영찬치를 한다고 야단들인 모양인데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생각이야…』

차분할도 잠시、86세의 전대통령은 20代의 亡國청년으로 큰 뜻을 품고 學業

"이젠 싸울相對도 없고해서 白髮된 英同窓만나 懷抱나"

에 몰두하던 에딘버러대학의 학창시절로 돌아갔다。

『내게 민주주의의 신앙을 심어준 곳이지。사회의 룰을 지키기만하면 어느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天國이었어。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고、價値上의 상대주의를 존중할줄 알고 다양하면서도 질서가 유지되는 그런 산교육을 배웠지。스스로를 법을 지키기만 한다면 민주주의가 얼마나 強한 것인가를 알게 될텐데…』

—日本역사교과서 歪曲문제로 시끄러울때 찾아뵈려 했는데요。

『지난 8월15일 先塋에서 落傷을당해 지금껏 치료를 받고 있지。많은분들이 지적한 얘기지만 日本은 자기국민을 속이는 엄청난 착오를 저지르고 있는거야。善惡은 皆吾師란 말이 있지 않소。지난날의 잘 잘못을 바로 바라볼때 내일의 발전을 가져온다는게 역사의 가르침이지。정말 日本특유의 奸惡한 發想이야』

그러면서 그는 해방직후 中央廳을 허물어버리자는 여론이 들끓을때『민족受難의 상징적인 건물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자』며 반대론을 폈다고 回顧한다。

海葦는 落傷이후 眼力이 현저히 약해졌지만 신문을 통해 최근 국회의 水位논쟁도 알만큼 알고 있다고 빙그레웃는다。

『올해는 大豊이야。밥농사도 그렇고 과일까지大豊이니 마음이 한결 넉어지는 기분이야』

海葦의 이번나들이에는 부인 孔德貴여사、商求씨부부、民韓黨의 尹起大의원이 수행하며 英國、스위스、네덜란드、파리、美國을거쳐 내달 20일께 귀국할 예정이다。

【李成俊기자】

두자리숫자 失業率에 美국민들 충격

언론·野黨선 "레이거노믹스失敗" 비난

【워싱턴=李文熙특파원】미국노동성이 발표한 지난9월말현재의 실업률 10·1%는 종전의 9·8%에서 불과 0·3% 증가한것이지만 드디어 우려했던 두자리숫자에 들어 섰다는 것과 상황이 호전되는 것이아니라 더 나빠지고 있다던 두가지 이유에서 미국국민들에게 큰충격을 주었다。

신문·TV들은「국가적 비극」이라며 이최악의 경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야당인 민주당과 노동조합측은 레이건경제정책의 실패의 증거라고 말했다。

민주당인 오닐하원의장은 경제회복을 위해 의회가 나서야 할 때가 온 것같다고말 맹산업별회의(AFL-CIO)의장인 레인·커클랜드는 레이거노믹스의 무자비한 댓가라고 말했다。

레이건대통령의 경제보좌관인 마틴·펠드스타인조차 미국경제가 완만한 회복세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실업률에서 그징조가 나타나야할 것이나 불행히도 그렇지못한 것같다고 말했다。

이런 충격적인 실업률에대해 정부도 물론 당황하면서도 곧 경제를 회복으로 이끌고 갈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정부는 회복기미중 하나로 지난 8일 뉴욕증권시장의기록적인 場勢를 들고있다。또 경기회복에 박차를 가하기위해 금리인하를 모색하고있다。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에서 10·1%의 소식을 들은 레이건 대통령도 스스로 「나쁜 소식」이라고하며 미국의 수출증대를 위한 수출무역회사법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행정부는 맹세코 이들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겠다고 말했다。

어쨌든 10·1%는 중간선거를 3주앞둔 레이건의 共和黨정부에 큰 상처를입힐 것임에 틀림없다고 모두 보고있다。

일부경제학자들은 연방은행의 경색된 금융정책과 고금리가 불황을 촉진했던 가장 큰 요소라고 주장하면서 레이건이 적절한 정책전환을 꾀한다면 民主黨의 공격을무력화시킬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高金利와 달러貨의 강세에 짓눌려 크게 경색되어있던 국제금융시장이 완화될조짐을 보이면서 침체의 迷路를 헤매던 세계경기가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나 회복기미를 보이고있다。지난 주말 긴축의 기수 폴·볼커美연방 준비은 이사장이『침체에 빠진 미국경제의 회복을 자극하기위해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선언한데이어 주초인 11일 뉴욕 證市에서는 다우 존스주가지수가 1천대를 돌파했고 강세를 유지하던 달러貨가 고개를 숙인가운데 金가격이 고개를쳐들었다。

당장 한국파급기대못해도 技術개발등 준비서둘러야

세계景氣회복

"靑信號"

뉴욕證市폭발·金값도 치솟아

곳곳伏兵 급격回復은 어려워

이보다 앞서 국제고금리를 주도해오던 연방준비은행은 지난8일 공정할인율을 9·5%로인하、상업은행들의금리인하를 가능케했으며 일반 상업은행들은 지난7일 프라임레이트를 13%로 인하한데 이어 11일에는 앨라배마의 버밍검 제일은행이 다시 12·5%로 내려 지속적인 금리인하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11일 뉴욕증시는 폭발장세를보여 다우 존스주가지수는 15개월만에 다시 1천을 돌파했고 특히 주가상승폭이 매우커서 증권투자가들은 뉴욕증시 1백30년사상 최고의 활황경기를 맛본것으로 평가되고있다。주가는 경기의선행지표。항상 주가가 앞서고 경기회복이뒤따른다。

또 뉴욕상품거래소에서는 11일 하루사이에 金값이 온스당 30달러나 치솟아올라 4백48달러를 기록했고 지난 2년동안 강세를 유지해오던 달러貨가 마침내 약세로 전환했다。

12일 각국의 외환시장에서는 달러貨가 서독의 마르크、프랑스의프랑、일본의 엔、영국의 파운드및 스위스 프랑에대해 일제히 약세를보이기 시작했다。

美고금리의 하락과 달러화의 약세는 국제금융시장의완화、나아가서는 美國의 경기회복、세계경기회복을 가능케하는 靑信號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밖에도 세계 각국은 침체된 경기를 자극하기 위해 각종 경기부양방안을 모색하고있다。

美國은 9월말현재 실업률이 10%를 넘어섰다는 충격적인 보도에 뒤이어 레이거노믹스의 성공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고금리의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日本정부는 경기침체에 자극받아 지난8일 향후 1년간 2조엔규모의 公共투자를 추가지출하는것을 골자로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또 서독은 2·4분기중 마이너스 0·5%성장을 목표로한 경기부양 방안을、프랑스는 미테랑정부의 인기만회를 위한 경기부양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이같은 경제여건의 변화와 주요국가의 노력은 세계경제가 이제 최악의 상태를벗어나 조만간 회복국면에 들어서리라는 기대감을 갖게한다。그러나 이같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곧 한국의수출증대、나아가서는 국내경기회복으로 당장 파급된다고 기대할수는 없다。

세계적으로 주가및 금값이 오르고 달러가 약세로 돌아선것은 경기회복에대한 기대감때문이지 실제로 경기가회복된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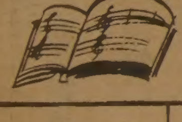
10·1%라는 미국의 실업률이 말해 주듯이 미국의 경기는 아직도 최악의 상태에 있고 앞으로 경기가 회복된다하더라도 회복의 속도는 미미하여 급격한 회복은 기대하기어렵다는 견해가지배적이다. 요즘의과같은 불경기속에서 13%선의 프라임레이트는 급격한 경기회복을 기대할수없게하는 것이며 주요국가들은 재정적자폭의 확대때문에 경기부양책에 소극적이다。

달러화의 약세전환도 마찬가지。달러의 강세가 고개를 숙인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달러는 다른 주요통화에비해 터무니없이 고평가 되어있고 달러화의 과대평가때문에 달러에 링크되어있는 우리나라의 원貨도 고평가되어 한국수출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고있다。예컨대 한국상품이 일본상품과 가격경쟁을벌일수있는 환율은 1달러에 2백20엔수준이다。그런데 현재환율은 1달러에2백63엔。한국상품은 그만큼 가격경쟁에 불리한상태에있다。

이밖에도 원유시장에서는 산유량감소에 따라 현물가격이 공시가격을 상회하고있으며 다시 공급부족현상까지나타나고 있다。그위에 우리경제는 지난3년간 긴축의 와중에서 기술개발을 소홀히해왔고 생산성향상이 이루어지지않아 수출의 비가격경쟁력마저 현저히 저하되어있다。

이 모든것은 수출의 급격한 증대를 어렵게 만든다。따라서 우리경제는 회복기미를보이기시작한국제경제에 편승할수있도록 말뿐이아닌 내실있는 기술개발과 생산성향상 그리고 수출마키팅활동을 강화하는것이 시급해지고있다。

종교서관
●기독교및 일반서적
★일반서적 다량입하
714 BLOOR ST. W.
535-1920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교 회 안 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 : 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 W.)	244-28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 : 30 영어설교 오후1 : 30 오후 2 : 00 금요저녁 9 : 00	3817 Lawrence Ave. E.	755-7979 431-3635
시민교회	조성관	주일오후 2 : 00 금요기도 밤9시 기관모임 3:20 주일저녁 4:20	662 Pape Ave. Tor	266-4918
대한교회	조남유	주일오후 2시	3819 Bloor St. W.	621-6340
순복음토론토	이필주	주일오후 2 : 00 금요기도 8 : 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메시아한인교회	조창환	주일오후 1 : 30 영어예배 12 : 30 새벽기도 6 : 00 (오전)토 수요예배오후 8	1580 McCowan Rd.	298-1876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 : 30 주일 낮 12 : 00 주일오후 2 : 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오전11 : 00 금요기도 밤10시 주일오후 1 : 00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정춘수	주일오후 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 : 30 토요기도 밤7시 성경공부 2 : 40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 : 00 주일오후 1 : 00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 : 30 수요오후 7 : 00	7 Gretna Ave. (Victoria Pk. &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수요새벽5 : 30 중고등영어 오후1시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선교교회	강제철	주일오후 1 : 00	1 Greenland Rd.	444-8002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김옥희	주일영어 1 : 00 주일성경 1 : 00 주일예배 2 : 00 수요예배 8 : 00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Ont.	498-7960 752-9860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평일기도 오후2시 토요집회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 Tor.	698-5363
베다니성결교회	김요환	주일오후 1시 성경공부 주일 오후3시	2799 Weston Rd.	248-9709 248-1653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예배 11 : 00 수요오후 7 : 30 12 : 30 토요일오후7시30분	1239 Jane St. & 1384 Weston Rd.	248-4130 233-2266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성경공부	1272 Weston Rd.	242-4964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 : 30 금요저녁10 : 30 수요저녁 7 : 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9880 423-8400 (복음다이알)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 : 00 주일오후 4 : 00 금요오후 8 : 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일요오후 2 : 0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감리교회	여용순	주일오전11 : 00 금요예배 7 : 30	2385 Warden Ave.	444-8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전11 : 00 주일오후 1 : 00 금요오후 7 : 30 (영어예배)	68 Collinson Blvd. North York	755-9766 636-1724
제7일안식일	박현종	금요오후 7 : 30 토요오전 9 : 30 11 : 00	255 Finch Ave. W.	630-4284
한인중앙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 : 00 금요오후 9 : 00 성경공부 2 : 20	502 Bathurst	961-8361 전화설교
천주교회	고종옥	주일오후 1 : 00 토요오후 5 : 30	439 Dundas St. E.	863-0415
침례교회	홍신용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 : 00 수요집회 밤8시 주일오후 4 : 30	240 Manor Rd.	446-1211
키치너 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 1 : 30	54 Queen St. 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 : 00 주일오후 2 : 00 (영어예배) (대예배)	300 Queen's Dr. 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 : 00, 수요오후 7 : 30 T. V. 예배 8 : 30~9 : 00A. M. CH. 79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 : 30 주일학교 3 : 00 예배 3 : 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移民1백년…80만同胞의「오늘과 내일」 現地좌담

쇄국의 문을 굳게 닫고있던 朝鮮왕조가 1882년 미국을 대표한 美태평양함대 사령관 슈펠트제독과 수교조약을 맺고 西洋에 韓半島의 정체를 드러낸지 올해로 1백주년을 맞았다. 지정학적으로 대륙에 붙은 작은半島인 한국은 인접남방의 해양세력 日本에겐 「심장부를 겨눈 비수」요 북방대륙세력中國엔 「머리를 강타할수있는 망치」로 이들 열강에겐 한치의 양보도 있을수없는 전략적요충이었다. 列強들은 無主先占을 주장하며 냉정한 국제질서속에서 무능한 朝鮮王朝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다. 국운이 돌이킬수없을 정도로 기운 1903년1월13일 1백1명이 탄 여객선이 하와이부두에 도착하면서 시작된 한국인의 美洲로의 이민행렬은 1905년까지 65척에 달했고 마지막 여객선까지 정확하게 7천2백26명이 내렸다. 이렇게 半노예적 농업이민으로 시작된 코메리칸들은 1965년 소위 개정이민법의 혜택으로 소수민족중 가장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전미주에 80여만명이 고루분포, 내일을 다져가고있다. 「자리굳혀가는 美國속의 한국인」 시리즈의 마지막편으로 지금까지 파악된 실상을 바탕으로 현지 세교포학자들의 마무리 좌담을 통해 「코메리칸의 오늘」을 분석하고 「내일」을 조감해본다. 【편집자註】

사치·虛勢버리고 自生길 찾아야

"장미빛 幻想"의 彷徨은 영원한 異邦人된다

敎育水準만큼 일터 못가져 異質문화·美式思考 적응을

2世들 거의 韓人社會와 단절

멕시칸등 少數民族과의 갈등없애야

참석자

俞義瑛박사 〈44·CSULA(캘리포니아州立大)교수〉
李昌洙박사 〈50·USC(南加州大) 교수〉
崔福林교수 〈50·女·샌디에이고州立大교수〉 (가나다順)

장소·한국일보 로스앤젤레스支社 회의실
사회및기록·정치부 盧鍾煥기자

▲崔福林교수=우선 저는 이 자리에서 유일한 여성이니까 또 저희 전공쪽에서 여성얘기부터 하겠읍니다. 뭐니해도 미주 이민사회는 로스앤젤레스가 중심이지요. 1952년부터 제가 조사한바로는 이민의 주류는 6·25전쟁을 계기로 국제결혼한 여섬이 근대 우리이민의 효시라고 봅니다.

이들은 현재 약5~6만명으로 추산되며 지금까지 해마다 2~3천명이 계속해서 왔지요.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남편에게 대우를 못받고 또는 여러가지 이유로 이질문화에 잘 적응을 못하고 설상가상격으로 한국코뮤니티에서도 동포대우를 받지못하는 가슴아픈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국방성자료에 의하면 금년 주둔 미공군25%가 동양여성과 결혼한것으로 나타나있어요. 심하게는 극동주둔 어떤 함정한척은 98%의 수병이 내가 동양인(주로 일본여성)으로 되어있읍니다. 국방성당국이 저에게까지 대책을 물어올정도로해외주둔 미군가족에 대한 서비스에 큰 관심을 갖기시작했더군요. 전쟁도 가정이 튼튼해야 이기니까요. 문제는 우리들이 국제결혼여성을 이상한 눈으로 보고 또 이들에게 문제가 생길때 도와주는 기관이없어 같은여성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俞義瑛박사=한인코뮤니티의 시작은 1903년 약 7천명의 하와이사탕밭이민으로 거슬러가야하리라 봅니다. 崔교수가 지적하신대로 6·25이후엔 국제결혼여성들이 근대이민의 효시라 볼수있지만 실은 1950년대 이전에도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인사회가 있었지요. 8·15전까지는 광복을위한 독립운동으로 그들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찾았지요. 불행하게도 초기이민의 2세들이 자라면서 코리안이란 자각을 갖지못하고 한국코뮤니티에서 떨어져나간것이지요. 이들은 주위환경들이 오늘날처럼 한국인들을 인식할만한 한국인의 집단촌이나 시설들이 없었던것입니다.

▲李昌洙박사=두분지적처럼 초기 우리 이민사회는 소수의 유학생 중심에서 6·25동란을 계기로 국제결혼여성이 대종을 이루는 일반인 중심으로 옮겨 갔읍니다. 근대 우리 이민중 가장 두드러진 현상으로는 이들 국제결혼여성들이 형제·자매를 초청해와 코뮤니티팽창의 선도적역할을 했다는 점이지요. 또하나 60년대 西獨광부로 가신분들, 월남전에 참전 혹은 미국인회사에 용역으로 나가신분들이 미국으로이주해와 이들이 훗날 떼밀듯이오늘날의 자랑스런 코리안·코뮤니티형성의밑거름이되기도했지요.

▲崔교수=제가 유학왔던 1950년대 초기엔 해방전 독립운동으로 우리들의 구심점역할을하던 흥사단, 동지회같은 동포단체가 있었읍니다만 이기관들이 1세들끼리만 공동관심사나 이해에 관심을 가졌지 2세나 3세들엔 눈길을 보내지 못했지요. 그러나 하와이같은것은 예외였던 것같아요. 하와이가 갖는 특수성, 이를테면 당시엔 항공수단 미발달로 많은사람들이 선편을이용해서 미국을 찾았는데 이때 하와이는 이주본토의 관문이었고 또 주로 동양인들이 많아서, 우선 우리 동포들도 우리가 마이노리티(少數)란는 생각을 않고있었지요. 수입면에서도 고소득층에 속했고 같은피부색깔(日本人)들이 연방상원의원, 하와이주총장등 고위직에 있으니까 별로 소외감같은것을 몰랐으니까 그런지 아뭏튼 본토와는달리 2세가 한국코뮤니티와 단절이 비교적 덜 되었던것 같습니다.

▲俞박사=동포사회는 이민초기엔 대부분 육체노동으로 생계를 꾸렸지요. 하루에 부부가 새벽별을보고 나가서 저녁별을 보고 귀가하니까요. 이들은 이렇게해서 10년이 안돼 경제적으로 자립, 대부분이 주유소나 햄버거가게, 세탁소, 옷가게, 자동차수리업소등 스몰 비즈니스를 自營하면서 자식들 교육에 정열을 쏟지요. 동포 비즈니스성공의 큰원인중 하나로 우리들의 높은 교육수준을 들수있을것 같아요.

▲李박사=사실 초기이민이야 무일푼으로 한낱두뇌로만 일어선 自手成家했지만 최근10~20년사이엔 일부사람들은 상당량의 정착자금을 가져왔다고봐요. 연구일등을 따지면 금액상으론 높을지모르지만 투자+노동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큰성공이라고 할수있을까 의문시되는점도 있어요.

▲俞박사=李박사말씀도 일리 있지만 저는 성공의 가장 큰요인은 단연코 우리들의 높은 교육수준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졸업자가햄버거가게를 경영하는것과 낮은 교육배경을 가진 다른 소수민족과는 매니지먼트에서 큰차이가 나지요. 또하나 지적하고 싶은점은 비즈니스에 대해 담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崔교수=두분 말씀처럼 민족성의 문제같아요. 이를테면 일본인들은 무슨 비즈니스를 하려는 경우 너무 지나칠 정도로 재는 것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시작하면 그네들은 실패는 적은 것 같지만 큰돈은 벌지 못하는 것같아요. 반면 한국사람들은 무모할이만큼 어그레시브(공격적)하지요.

▲李박사=맞아요. 엊그제까지 시원찮던 사람이 며칠후 보면 횡재를 얻어 벼락부자가 되더니 얼마안가 망하는 사례를 많이 봐어요. 말하자면 좀 투기적인 것처럼 생활에 기복이 심한 것 같습니다.

▲俞교수=그점 저도 동감입니다. 가족단위의 육체노동으로 시작해서 조금 벌리면 비즈니스를 시작, 몸으로 때우면서 경영지식이나 정보도 없이 무작정 규모를 키우는게 실패할 때가 많지요.

▲崔교수=또 한국인들은 사치가 좀심한것 같아요. 또 들리는 얘기로는 부녀자들 사이엔 契가 성행한다더군요. 일전 보도를 보니까, 한 동포여인이 2만달러가 든 핸드백을 날치기당했다는 기사를 읽고 놀랐지요. 교포마킷을 가도 주차장엔 가끔 롤즈로이스를 구경할수있어요. 특히 교포남성들은 또라스베이가스에도 자주 가신다더군요. 몇만불을 잃고 가정파탄이 났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려요.

▲李박사=옳은 말씀입니다. 물론 미국사회에서 인정을 받기위한 한방편이긴 하지만 우리동포사회엔 캐딜락·멘탈리티(Cadillac Mentality)가 강한것같아요. 10만달러가 넘는 고급차인 롤즈로이스를 실용이되는 사람이 산다면야 할말이있을수가 없겠지만 다만 신분과시용으로 구입한다면 문제가 있지요. 월부금을 못갚아 롤즈로이스를 압수당해보고 되팔았다는 어느분의 얘기를 들으니 씁쓸하더군요.

▲俞박사=캐딜락이나 롤즈로이스등 탈수만 있는 사람이라면 타야지요. 성공한 부동산업자, 봉제업자 등 자기 비즈니스를 위한다면 저는 롤즈로이스라도 타라고 권장하겠어요. 저도 지금 도요다를 타고있지만 여유만있으면 캐딜락등 고급차를 타겠읍니다. (웃음)

▲李박사=문제는 우리 동포들의 경우 미국인 일반레벨(수입수준)에 비교하면 승용차 선망은 좀 사치스러운 감이 듭니다. 롤즈로이스가 성공의 지표(Success Index)가 되어서는 곤란하지요.

▲崔교수=한국인의경우교육수준과 생업과는 너무 괴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박사학위를 따도 직장은 없고 햄버거 파는 박사도 있다고 해요. 한국인만큼 교육받은 것에 비해 생업이 맞지않는 경우는 드물다고 봅니다.

▲李박사=미국이민사회는 아빠(남자)들의 수난사회라고 합니다.

한국에선 家父長的 아버지의권위가 대단하지않읍니까. 우선, 부부간에 갭이 생기지요. 자식들역시 부모를보는 눈이 달라요. 공부하라고 종아리맞은 어느2세국민학교 2학년생이 아빠를 어린이학대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얼렀다니까 말입니다.

이민생활중 가장 좌절을느끼는쪽이 남편(아빠)쪽인 것같아요. 자연히 한잔술로 달래지요. 나개인적으로는ERA(Equal Rights Amendment남녀평등 헌법개정)가 깨진것이 그렇게 후련할수가없읍니다. (웃음)

▲崔교수=아내쪽입장도 생각 해야지요. 남편수입만으로 안되니까 아내쪽도 나서는것 아닙니까. 일찾다오면 피곤한데 부엌일까지 말는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아내쪽이 갖는 좌절감도 대단해요. 물론 남편쪽의불만도 이해가 갑니다.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특권의식이 미국와서 제약을받으니까갈등이생기겠지요. 아내쪽도아내+엄마+노동의힘을생각해서남편들도부엌일정도는도와야지요.

▲李박사=한가지 부탁이 있읍니다. 한국서 친구등 손님들이 집에 찾아올때만이라도 아내들은 좀 조심해주었으면 합니다. 이곳 사정모르는 친구들 들어가서 그친구 미국가더니 부엌에서 설겆이도 한다는 공처가가 됐더라는 소문은 안나도록말입니다. (웃음)

▲俞박사=사실 두분말씀처럼 부부갈등이 가정을 지키기위해서는 서로 양보해야지요. 직장에서 말이 잘안통해 수모를 당하고오는남편을집에서나마 기를좀펴게하고 반면 직장에서 고생하고 돌아온 아내를위해 때론 조리도 설겆이도해서 서로서로 도와야지요.

▲崔교수=남녀평등변화로 겪는 일시적인 갈등해소를위해 교회, 성직자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야할줄 압니다.

▲李박사=대체로 요즈음 이민오시는님들은 외면적인것만보고 실상을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오는것같아요. 과거 중국인들이 미국땅을 밟기만하면 모두 일확천금하는것처럼 무작정 아무런 사전에비지식도없이 그저 장미빛 환상만 가지고 오는것같은데 현재의미국은 그렇게 유토피아만은 아니라는걸 인식해야합니다. 그만한 노력 그만한 능력 재력이라면 한국서도 충분히 계살수있는분도 와서 고생을 사서하는분들이 많은것같아요.

▲崔교수=조금전에도 말씀들이 계셨지만 오늘의코리안·코뮤니티는 미군과 국제결혼하신 여성들의 힘으로 큰성장을이루었다고봅니다. 제가 살고있는 샌디에이고 부근 해군기지주변엔 아직도 우리국제결혼여성이 많은데 제대로 자기영문이름도 쓰지 못하는 사람도 상당수예요. 이들이 온갖설움과 외로움때문에 일가친척들을 속속불러왔지요.

▲俞박사=이제 한인사회 규모도 상당히 커졌고 수년내에는 우리도 연방의회나 주의회에 진출하는 2세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소수민족이 그래도 自生하려면 우리의 이익이나 관심을 대변하는 채널이 필요할것같아요. 지금당장 연방의원에도 전하다거나 주요공직에 나서기는 아직도 시기상조같아요. 만약출마한다하더라도다른 소수민족사회, 이를테면 白人이나 경우에따라선 흑인, 스패니시등과 협력관계를 가져야 하리라본다는데 정치학자이신 李박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李박사=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의생각으로는 조만간은 이문제에관해 비관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최근 레이건이등장후소수민족정책가 없어진것같아요. 과거처럼 흑인이 꼭 民主黨에 표를 몰아주지않습니다. 또 같은 흑인이라고 흑인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지도 않고요. 현재 한국코뮤니티의 정치활동이란 유명무실, 정치인에게 몇만달러 기부하고 어깨맞대고 사진찍는것이 고작이라는 정도이지요. 도대체 선거란 반대급부를 노려야 하는데….

▲俞박사=저는 그런정도만이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싶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보트·파워(투표권)가없기때문에 이런 재정적인지원을 통해서라도 한국인, 한국사회가 정치에 참여하고있다는 인식을 심어야지요. 문제는 그만한도로 낼만한 재력도 없는분이 자금을내는 경우입니다.

▲崔교수=꼭 돈을 내지않아도 되는경우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가계로 봉사하는세 지원도 한방편이겠지요.

▲俞박사=한 20년정도 기다려야할것 같아요. 우수한 명문대학에 동포 2세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추세니까 이들이 사회에 나올때까지 기다려야지요.

▲李박사=꼭 정치분야만 역점을 둘게 아니라 법률계, 연극·영화계, 교육계등에도고루 퍼져서 이들이 서로 연계를 이루면서 힘을 길러나가야지요.

▲崔교수=한가지 지적하고 싶은점은 하버드 예일등 소위 명문대학을 나오면 대기업으로 가야만 성공한것으로 생각하는 동포들이 많아요. 단10%만이라도 성공한 후에 한국 코뮤니티로 돌아오면 좋은데… 아뭏든 아이비·리그의 아시안계학생들의 절반 정도가 한국계라더군요.

▲俞박사=가장큰 문제가 한국적인 척도로 이해하려는 것이지요. 기왕 미국에왔으면 미국식 사고를 갖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포사회에 교회가 많은것은 좋은일이라고 봅니다. 또 단체가많은것도 꼭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된다고봐요. 문제는 잘못 정치화된사람들 때문이지요.

▲崔교수=한국코뮤니티에 문제가 많다고하나 다른인종사회에도 다있읍니다. 중국인사회의경우 자기들끼리 다투어도 외부노출을꺼리나 우리경우 법정제소등 외부노출을 즐기는데 이는 우리남성분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훈련부족에서 오는결과라고 생각합니다.

▲俞박사=데모크라시·프로세스(민주과정)는 룰을 지켜야하며 그룰에 따라 페어·플레이를 해야하리라고보는데 근간이되는 룰마저도 임의로 자주바꿉니다. 자기의견과다르면 자기의견에도전하는것으로생각하고 「나를 무시하기냐」로 돼버려 남의 생각은 수용하려들지 않는게 문제지요.

▲李박사=동양사회는전통적으로 인간에의한 지배형태로 法에의한통치보다개인의 카리스마에의한통치이지요. 이를테면 돈을꾸어주며 차용증서쓰라고하면 믿는사이에 무슨 차용증서냐며 화를내는데 이점은 고쳐야할 구습입니다.

▲崔교수=두분께서 우리 코메리칸의 현주소와 미래를 위한 개선점을 많이 지적해주셨는데 저역시 우리의 장래는 꽤 밝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세대들이 어떤 방향으로 돌아갈것인가는 미지수이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좋아지리라는 점은 명확하지 않겠어요. 이러기 위해선 李박사님 俞박사님들 처럼 교직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자주이런기회가 마련돼 코뮤니티문제를생각하는기회가마련됐으면해요.

▲俞박사=좋은 말씀입니다. 지금당장 우리코뮤니티가 해결해야할 문제가 흑인 멕시칸등 인접소수 민족과의 갈등해소로 시급하리라 봅니다.

▲李박사=두분의 결론처럼 인간성회복에동감입니다. 【끝】

◇코메리칸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조감하고있는 재미학자들. 左로부터 李昌洙박사, 俞義瑛박사, 崔福林교수. 【로스앤젤레스支社=柳根哲기자찍음】

7남매 仁術가족 綜合病院 세운다

麗水 番洞의 開業醫 鄭雄吉박사 남매

4형제 醫師、3姉妹는 藥師

아버지뜻따라 奉仕길찾다 같은길

"시민들의 병원되게 최선 다할터"

【麗水】의사 4형제가 환자를 돌보고 약사3자매는 형제의사들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지어준다. 의약분업으로 인한 분쟁도 없다. 하나의 상상이 아니라 내년말부터 麗水시내에서 볼수있게된다.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꽃피어날 7남매 인술가족의 병원은 지난9일 麗水시光武洞 麗水상공회의소옆에서 기공식을가진 전남병원.

대지 9백20평에 지하1층, 지상 5층에 연건평1천3백평 (병상1백30)규모인 이병원은 현재 麗水시 番洞에서 일반외과및흉곽외과병원을 개업하고 있는 鄭雄吉박사 (41)와 동생들인 閔吉(36)友吉(34)琮吉씨 (28) 등 의사 4형제와 鄭박사의 여동생인 美香(38) 庚姬(32) 龍子씨(29) 등 약사 3자매가 짓고 있는것이다.

7남매가 종합병원을 짓게된것은 「인생은 빈손으로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것이, 남을위해 무엇인가봉사할수있는 길을 찾아라」는 아버지 鄭明敏씨의뜻에 따른것이다. 아버지 明敏씨는 아들을 전부 全南의대에 진학시키고 仁術가족의 종합병원을 꿈꾸었는지 전공과목을 각각 다르게택하도록했다. 딸들도 「仁術」가족의 종합병원에 도움이 되도록 의사배필을 정해주려했으나 막내딸외에는 뜻을 이루지못했다.

4형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鄭박사는 흉곽외과, 둘째 閔吉씨는 일반내과와 호흡기내과, 세째 友吉씨는 산부인과, 네째 琮吉씨는 일반외과를 각각 전공했다.

여기다 막내여동생 龍子씨의 남편 金東明씨 (30)가 정형외과를 전공, 병원이 준공되면 함께 일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일가족 종합병원이 탄생하게 되는 셈.

병원을 짓게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없었던것도 아니다. 閔吉씨와 友吉씨가 미국 테네시주에서 개업을하고 있어 이들을 설득하는게 문제였다. 鄭雄吉박사는 두형제를 설득하기 위해 미국을 두차례나 방문했다. 그리고 全南지방에 麗川공단이 설립되어 공해문제가 심각해질 것에 대비, 閔吉씨에게 호흡기내과도 공부하도록했다.

현재 부족한 진료과목은 신경외과·소아과·마취과등이다. 이분야는 전문의사를 초빙할 계획이다.

麗水고등학교 신축기금 모금, 불우아동들을 위한 재건중학교 건립부지희사등 지역발전에 앞장서 제1회 사회복지부문 麗水시민의 賞을 받은 7남매의 아버지 明敏씨는 「종합병원이 7남매의 소유가 아닌 麗水시민의 병원으로활용되는게 꿈이다」고 말했다. 【鄭】

◇7남매 仁術가족이 운영하게될 전남병원조감도。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43>

朴婉緒 作
金光培 畵

안개속의 집 ⑩

나른한 잠속으로 빠져들던 기욱이 별안간 얼굴로 쏟아져 내린 강한 불빛때문에 눈을 떴다.

불 끄지못해, 하고 악을쓰려다말고 불빛속에 떠오른아내의 얼굴이 깜짝놀라게 지성적인데 놀라서 허위적대듯 손만 휘젓다가, 제풀에 몽그란 스탠드불빛밑을벗어나 침대 가상이에 몸을 오그렸다. 처량했다.

남편의 잠든 얼굴에 거침없이 강한 불빛을 퍼부으며 열심히 강의준비를 하는 아내가 그의 자존심을 몹시 상하게 했다.

부부란 정만 없어지고보면 새록새록 밉기만 하다던가? 결혼하고 십년동안에 양파껍질 벗듯이 그저 그렇게 달라지는 아내의 모습을 때로는 아연하게, 때로는 시들하게, 때로는 경멸하며 보아넘기던 기욱이었지만 이렇게 지적으로 보일 때는 자존심까지 상하니 기분이 고약해질밖에.

머리에선 탱탱 소리가 나는 주제에 이렇게 아내를 알잡음으로써 자신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려했지만 잘되지 않았다. 제일 자기 꼴이 말이 아니었다. 아내는 전혀 남편 눈치 안보고 촉광높은 스탠드불을 켜고 당당하게숱 두터운 책이랑 노트를 펴놓고있는데 명색이 남편이 불빛을 피해 발치에서 새우잠을자다니.

기욱은 그만 잠이 달아나 맨숭맨숭한 얼굴로 다시 아내와 나란히 한 베개로 기어올랐다. 훼방이나 놀 셈이었다.

『시간당 얼마나 받아?』

『뭘요?』

『뭘 뭐야? 그 촌학교 강사료 말이지』

『마치 파출부 일당 묻듯 하시는군요? 촌은 또 뭐예요. 적어도 도청 소재지예요』

『당신도 쓸만한 말 할 줄 아는군. 파출부란 말 한번 잘 했어. 염치없이 파출부라. 내한도 가소로와서… 지 뭐야. 지식의 파출부다』

『안 주무실 거예요?』

수지가 발끈했다.

『나 밝은데서 못 자는거 알지? 우리 집엔 서재라는 것도 있어. 내 앞에서 구태여 지적인 냄새를 피울거 없잖아?』

『잠깐이면 돼서 그랬어요. 당신 혹시 다시 미국가서 공부하고 올 생각없어요?』

『뭐하러? 박사부인이 아니어서 불편한 점이라도 있나?』

『그게 아니라 당신의 열등감이 하도 딱해서 그래요』

『열등감? 내가 당신한테 열등감이 있다구? 이 여자가 정말 뭘 모르는군。내가 눈꼴 사나운건 당신이 잘나서가 아냐。여자의 허영심이란 다 꼴불견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못봐주겠는 게 지적인 허영심이라는 거나 좀 알고있으라구。추악해 정말』

『그렇게까지 나 하는 일이 못마땅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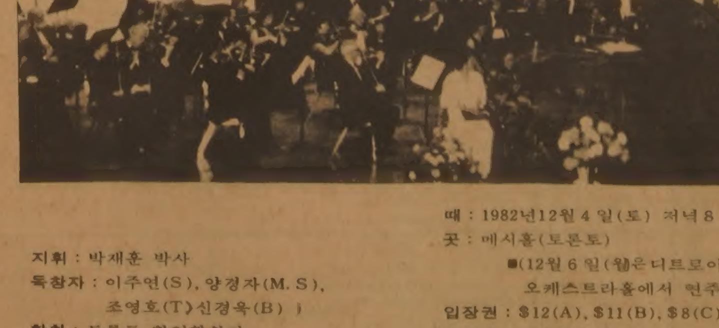
수지가 책을 밀어놓으면서 멍청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자선사업까지는 간신히 참아줄 용의가 있어。그렇지만 지방대학 파출부는 정말 못봐 주겠어。비싼 등록금 내고 당신의 강의를 학생들 상상하기도 괴롭고…』

기욱은 참고 참은 수지에 대한 불만을 쏟어야겠다고 잔뜩 벼른다. 벼르면서도 변비의 예감처럼 하고 싶은 말을 다할 것 같지 않은 뿌덥지근한 무력감을 어쩌지 못한다.

한국일보 구독신청 533-2361

제2회 메시아 대연주회



지휘 : 박재훈 박사
독창자 : 이주연(S), 양경자(M.S), 조영호(T)신경욱(B)
합창 : 토론토 한인합창단 (찬조 : 디트로이트 한인합창단, 연합교회 성가대(150명))
오케스트라·주로 토론토 심포니 멤버

때 : 1982년12월 4일(토) 저녁 8 시
곳 : 메시홀(토론토)
■(12월 6일(월)은 디트로이트 오케스트라홀에서 연주)
입장권 : $12(A), $11(B), $8(C)
구입처 : ● 합창단원들과 ☎222-4662(MRS. 김) 222-2901(MR 리)

주최 : 토론토 한인합창단이사회
후원 : 토론토 교역자협의회

캐나다전역 한국어교사 여러분께 알립니다

씨알학교에서 현재 연구중에 있는 제2단계의 자료를 시험해 보고자 합니다.
자료를 써 보시고 고견을 주실분은 연락을 바랍니다.
이 재료는 중급 또는 고급반에서 쓸수 있는 재료입니다.

●종류 1. 회화
2. 어린이들의 캐나다생활
3. 한국의 역사, 지리및 풍속
4. 재미있게 읽을 이야기들
5. 음악책

☎ 960-0074, 248-8885
150 Madison Ave.
Tor. M5R 2S5

씨알한국인학교

1982년도 추계한인친선 남·여 배구대회

◆종 목 : ⊙남자 대표부(연령제한없음)
⊙여자 대표부(연령제한없음)
⊙남자 OB(전원 30세이상)
⊙여자 OB(전원 25세이상)
◆일 시 : 1982년 11월20일(토) 오전 9시
◆장 소 : West Humber Collegiate Inst, (1675 Martingrove, Etobicoke)
◆신청및 문의 : 923-3846(문영환)
755-9925(임성철)
755-0308(정기섭)
◆신청마감 : 1982년 11월18일(목) 주장회의까지

주장회의 일시및 장소
▲일시: 11월18일(목) 오후7시30분
▲장소: Brandon운동구점(337 Bloor St.W.)
▲참가비: 60불 균일

토론토 배구협회

꿈꾸는 「제주도新房」

週末이면 신혼부부 2백쌍씩 몰려와 蜜月

택시가 觀光·쇼핑·사진사役도

【濟州=金普宗기자】 단풍철을 맞아 濟州道에 「행복한웃음소리」가 가득하다. 결혼시즌인 10월 하루평균 1백20쌍, 주말이면 2백쌍이상의 신혼부부들이 밀월여행을 와 어느곳에서든부 더기로 마주치고 있다. 제주도 신혼여행이 처음생긴 유행은 아니지만 요즈음은 비행기편이 편해진데다가 이국정취를 만끽할수 있는 탓인지 다투어 오기시작, 매일 1천쌍이상이 제주도에서 인생의 설계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10월의 제주도는 한라산 단풍과 함께 관광지, 호텔, 상점, 음식점할것없이 모두가 신혼분위기다.

신혼부부들이야말로 제주도관광업계로선 최고의 손님들. 우선 씀씀이가 크고 까다롭게 굴지않아 택시운전사는 물론, 호텔, 토산품점, 음식점, 관광농원에서 이들을 끌어담기려고 정신이 없다. 올해 제주도를 찾을 신혼부부는 약 3만5천쌍 정도로 예상, 전체관광객의 8%인데 관광수입으로 봐선 15%가넘는다는게 관광업계와 道당국의 분석이다.

濟州의 신혼여행분위기는 金浦에서부터시작된다. 『야, 재미있게 놀다 와라』『부럽다』는등 신부친구들의 수다 사이사이 『야, 여편네는 첫날부터잘 다뤄야 해, 안그러면 공처가가 되기 십상이다』라는 신랑친구의 우정어린 충고도 끼어든다.

대한항공 카운터는 이들의 좌석을 나란히 잡아주느라 혼이 나지만 나란히 못앉는 커플들은 통로도아랑곳없이 손을 잡기때문에 미혼의 스튜어디스들을 당황하게 만들기가 일쑤다.

이들이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것을 목이빠져라고기다리는 사람들이 택시 운전사들. 신혼부부를 노리는 택시운전사의 눈초리야말로 병아리를 발견한 소리개처럼 빛난다.

운전사가 신혼부부를 노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을 호텔까지 태우고 가는 10여분사이에 다음날 자기택시를 「대절」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대절료는 어느택시나 마찬가지로 요즘같은 시즌이면 4만~4만5천원이고 비수기이면 3만~3만5천원까지도 내려간다.

하루 대절한 신혼부부는 다음날도 타게마련이어서 운전사에겐 2·3일간의 금액걱정이 없어진다. 또 신혼부부들은 늦게 일어나고 일찍관광을 끝내기때문에 운전사는 [illegible] 승객이 많은 아침, 저녁시간을 활용할수있어 기를쓰고 신혼부부를 태우려한다.

[illegible] 일반승객들에 끼어나오는 승객을 겨냥, 차주나 고용된사람을 앞택시에 일부러타게하고 신혼부부를 자기 차에 태우는 기묘한 수법까지 동원된다. 이게 운전사끼리의 싸움으로 번지는건 흔한일.

신혼부부를 끄는것은 비단 공항뿐이니라 호텔도 마찬가지. [illegible] 으로 전화를 걸어 자기차를 타라고 조르고 로비를 나오는 신혼커플에게 접근하기도 한다.

일단 택시운전사가 정해지면 신혼부부들의 낯설음은 이들에게 좌우될수 밖에없다. 관광코스는 말할것도 없고, 식당, 쇼핑안내도 운전사에의해 안내된다. 그래서 신혼부부를 잘 태우는 운전사는 제주도내 관광업소에서 대단한 인기를 모은다.

운전사의 안내솜씨는 수준급이다. 더구나 사진촬영교육까지 받았기 때문에 경치좋은곳, 계절감각에맞는곳에 신혼부부를 세워놓고 갖가지 포즈를 취하게하며 사진을 찍어준다.

그러나 이런과정에서 신혼부부들은 자신들도 모르는새 바가지를 쓰기 일쑤다. 횟집, 토산품판매점, 관광농원등에 안내해주면 매상액의 일부를 운전사에게 준다는게 제주관광업계의 알려진 비밀.

이렇게해서 운전사들은 시간 벌고, 팁받고, 잘얻어 먹고, 바가지까지 씌우는 셈이다.

◇주말인 16일 濟州에는 2백여쌍 이상의 신혼부부들이 밀월여행을 했다. 신혼부부를 태우려는 택시운전사와 [illegible] 실랑이가 자주 벌어지기도했다.

알뜰旅行 갈수록 늘어

쌍쌍이 登山服차림 觀光버스便으로 절약
1일 택시專貰 4만원線…바가지 조심해야

문제는 신혼부부에게도 있다. 똑같은 꿀도 포장을 달리하고 값을 차이나게부르면 무조건 비싼것만 찾는다는 것이 업소주인이나 운전사의 말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알뜰신혼여행도 많이한다. 서울의 여행사에서 쿠퐁을사서 관광버스에타는 커플도 하루에 30~40쌍은 된다. 또 등산복을 벗어버리고 산뜻한 [illegible] 버스를타고 다니는 초절약형도 점점늘어나고 있다.

지역이 좁고 가는곳이 뻔히 정해진 신혼여행코스이고 보면 비행기에서 만난 커플이 호텔로비에서 마주치고 또 관광지에서 만난다. 인사를 하고 서로사진을 찍어주다 이야기가통해 다음날은 한택시에 두쌍이 타는 경우도있다. 이럴때 한 커플은 뒷좌석을 차지하나 한 커플은 남자는 운전석옆에 여자는 뒷좌석으로 분리된다. 이런불공평을 해소하기위해 하루씩 좌석을 바꿔타는 묘안도 생겼다.

이렇게 많이 오는 신혼부부들이지만 신부이나 하객이나 결혼과정이 각양각색. 운전사들의 말로는 처음어색했던 부부들이 날이 갈수록 친해진다 하면 어떤부부는 택시안에서 다투고 어떤때는 신부가 신랑을 팽개치고 버스를 타고 가버려 골탕을 먹이는수도 있다.

또마음에 안맞는 결혼때문인지 호텔에 투숙한 신혼부부중 밤사이 신부가달아나 버려 밀월아닌 밀입 [illegible] 예도 1년이면 2·3번은 생긴다. 지난 겨울에는 모 호텔에든 신부가 신랑의 지갑을 갖고 달아나버려 신랑이 [illegible] 경우도있었다.

警察署마다 「追跡조사班」

起訴중지·常習출석不應者전담

치안본부는 16일 일선경찰서에 기소중지자 추적수사반을 편성토록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이조치는 지능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상습적으로 도주하는 범법자를 뿌리뽑기위한것으로 전국 88개 경찰서에 2~5명을 추적조사반으로 편성, 도주한사람이나 3회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불응한사람을 검거하는 업무만을 전담토록했다.

치안본부 집계에의하면 올들어 지난6월말까지 전국에서 3만5백31명의 기소중지자가 발생했으며 이중사기횡령등 악질범이 35·5%인 1만8백30명이나 되는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사이의신청제도가 실시된 지난1월19일이후 치안본부는 사건을 잘못처리한 경찰관 84명 (73건)을 파면또는 감봉등징계처분했고 4명 (4건)은 타부서로 인사조치했으며 진정인7명도 무고및 청원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그동안 경찰에는 총1천8백33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며 수사상 과오가있었던것은 4·3%인 77건이었다.

허위書類로 產災보험 타내
會社대표에 2배 辨償받아

【木浦】노동부木浦지방사무소는 16일 허위서류로 산재보험금을 타낸 木浦市明倫洞9 동아전업사 대표金龍鎭씨 (46)에게 보험금의 배액을 변상토록했다.

노동부에의하면 金씨는 지난79년12월중순 전남咸平郡羅山지구 소도읍가꾸기 전주이설공사를 한전으로부터 맡아하던중 전공 申모씨 (43)가 감전, 중상을 입자 사고장소를 務安郡務安邑에서 발생한것처럼 꾸며 지난80년7월 산재보험금 4백95만원을 받아냈다는것.

金씨는 咸平羅山지구 전주이설공사의 사업비가 1천만원미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할수없게되자 이를 1천만원이상인 務安郡務安邑으로 바꿔 신청했다가 뒤늦게 이같은 사실이 밝혀져 최근 9백90만원을 변상했다. 【鄕】

억울한 獄살이시킨 「全州살인사건」
被告4명 死刑구형

【群山】金時勳씨 (30·大田市東區大洞194)에게 억울한 옥살이를하게했던 全州市孝子洞살인사건의 피고인 4명에게 모두 사형이 구형됐다.

16일 상오10시 全州지법群山지원1호법정에서 형사합의부 (재판장 辛敎澈) 심리로 열린 全州孝子洞자림원앞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趙承植검사는 權모군 (18·全州市南老松洞)·吳모군 (17·전북益山郡五山面)·이종남씨 (21·益山郡八峰面石旺里)·오정욱씨 (23·益山郡五山面松鶴里)등 4명의 피고인에게 강도살인죄를 적용,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24일밤 11시30분께 全州市孝子洞자림원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던 崔賢錫씨 (21·인쇄공)에게 시비를걸어 현금2천7백원을 빼앗은후 소지하고있던 흉기로 찔러죽이고 달아났었다.

당시 全州경찰서는 사건당일 현장부근에있던 金時勳씨를 용의자로검거, 살인죄로구속 기소했으며 金씨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15년을 구형받고 상고중 이들 權모군등 진범4명이 지난7월25일 검거돼 풀려났다. 【鄕】

釜山 金根夏군 殺害사건
오늘까지 公訴時效
참혹했던 犯罪…永久未濟로
遺族엔 "恨의 15년"

부산 金根夏군 (당시 부산 花郞국교 5학년·11) 살해사건이 17일로 공소시효 15년을 넘겨 18일 이후에는 「진범」이 나타나도 형사처벌을 할수없게 됐다.

金군은 꼭 15년전인 67년 10월17일 과외수업을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중 부산 西區東大新洞1街3 20 집에서 20m쯤 떨어진 골목길에서 나일론끈으로 목이 졸리고 과도로 가슴을 찔려 숨졌는데 당시 범인은 根夏군을 약상자에 넣어 택시로 부산시청뒤 해안에 버리고 달아났었다.

사건당시 택시운전사를 비롯, 많은 사람이 범인을 목격했다고 경찰에 신고, 경찰은 이 사건을 돈을 탐낸 유괴살인사건과 청부살인사건등 여러방면으로 수사를 펴 裵모씨 (21) 등을 용의자로 수배하기도했다.

사건발생 15일이지난 67년11월3일 경찰은 진범으로 全모씨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으나 全씨의 모교학생들과 이웃 주민들이 엉터리 수사라고 항의하는 소동을 빚다가 全씨는 이틀후인 5일밤에 무혐의로 풀려났다.

또 68년 5월29일엔 부산지검이 根夏군 살해범일당을 일망타진했다고 발표, 1심에서 범인들에게 사형까지 선고됐으나 69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 사건은 그후 영구미제가 되었다.

"公衆湯옷장은 모두 같은열쇠 貴重品도난 40%는 주인 責任"

釜山 民事지법判示

【釜山】 공중목욕탕에 들어가면서 주인이나 종업원에게 현금·유가증권등 고가품을맡기지않았다가 옷장에서 분실했을 경우에도 업주는 4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민사3단독金亨秀판사는 16일 安용규씨 (48·釜山鎭區田浦3洞330)가 부산釜田2洞187의6 삼호목욕탕주인 趙소옥씨 (47)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安씨가 현금·저금통장·인장등을 목욕탕주인이나 그 종업원에게 보관시키지않은 과실은 있으나 목욕탕주인趙씨도 한열쇠로 아무옷장이나 열수있도록 관리를 소홀하게했기때문에 공중접객업소로서의 책임을면할수는없다』며 『피고는 청구액의40%인70만원을원고에게지급하라』고판시했다.

安씨는 지난5월24일 상오11시40분께 삼호목욕탕 9번옷장에 넣어둔 양복주머니에서 8백20만원이예금된 釜山은행의 저축예금통장과 거래인장을 도난당했으며 도난즉시 은행에 뛰어갔으나 이미 1백80만원은 인출해가버려 주인을 상대로 손해액만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친구때려暗葬

秋夕때 是非…1명자수

【蔚山】10대 3명이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친구를 죽여 암장한 사건이 범인중 한명이 경찰에 자수함으로써 뒤늦게 밝혀졌다.

16일 蔚山남부경찰서에 따르면 金모군 (18·蔚山市夫谷洞) 등 한동네에 사는 10대 3명은 지난2일 밤7시30분께 蔚山市達洞 이용수공작소옆 노상에서 육태화군 (18·蔚山市新亭洞85)을 집단폭행, 육군이 숨지자 1백여m 떨어진 태화강옆 모래사장에 암매장했는데 이중 金군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15일 하오3시 경찰에 자수함으로써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그런데 숨진 육군은 지난 8월14일 친구3명에게 취직을시켜주겠다며 함께 경북飽尾공단에 갔다가 혼자만 大田으로 떠나버리자 金군등은 이에 앙심을품고추석을맞아 고향에찾아온 육군을만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것.

한편 蔚山南部서는 육군의 암장시체를 찾아내고 도망친 공범 李모 (17) 金모군 (18) 등 2명을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鄕】

強壓의해 쓴 포기서는 無效
"압수 다이어 돌려주라" 判示
僑胞, 국가상대勝訴

서울고법 제8민사부 (재판장 金永振부장판사)는 16일재일동포 具宅書씨 (57·서울城北區彌阿洞133의62) 가국가를상대로 7·7캐러트짜리다이어먼드 (싯가1억5천만원) 의 소유권을 주장한 「압수물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具씨가 검찰에서쓴 포기서는 강압또는 착오에의해 작성된것으로 무효』라고판시, 국가는 具씨에게 이 다이어먼드를 되돌려주라고 판결했다.

具씨는 지난78년12월8일 부인 金福順씨 (52) 와 함께 일본에서 귀국할때 문제의 다이어반지를 밀반입한 혐의로 검찰에의해 구속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검찰의 상고포기로 무죄가 확정된뒤 국가를상대로 서울민사지법에 「압수물반환청구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1심재판부는 『具씨가 검찰에서쓴 다이어먼드포기서는 본인의 임의에의해 작성된것으로 보이므로 밀수혐의가 무죄라하더라도 압수물은 국가에 귀속되어야한다』고 판결했었다.

5行뉴스

◆벼단훔쳐 탈곡해 도주

【金海】경남金海市漁防洞457 김태암씨 (40)는 金海市安洞 앞들에있는 자기논9백평의 벼베기를마치고 말리기위해 단으로 묶어 논에 세워두었는데 15일하오 논에나가보니 도둑이 논에 멍석을 깔고 약10가마분을 탈곡해가버렸다. 【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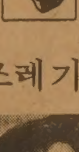
「汚物담당관」

貿易振興公 감사실장 具滋傑씨

貿博… "산더미쓰레기 치우면 새벽"

대한무역진흥공사 감사실장 具滋傑씨 (41·사진) 는 서울국제무역박람회에서 희한한 감투를 하나 썼다. 「청소질서담당부장」. 직함이 그럴듯해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 「오물담당관」이다. 매일 산더미 처럼 쌓이는 쓰레기등을 다음날 문을 열기전까지 말끔히 치워야하는 숨가쁘고 수월하지않은 업무이다.

요즘은 오물처리에 이력이 났지만 처음 이일을 맡았을땐 하늘이 노랐다. 무역진흥공사 각부장들이 자기에 일을 한가지씩 맡긴했지만 자기에게 오물처리책임이 떨어질줄은정말 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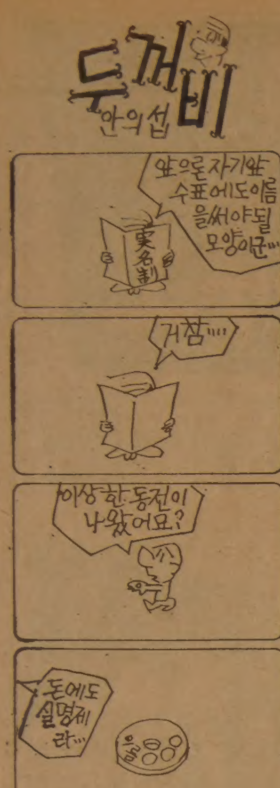
개막하루전날인 지난 9월23일 박람회장에 나가보니 4·5톤트럭 1백여대분의 공사장 쓰레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를 질끈깨물고 4명의 부하직원과 36명의 청소원들에게 『해보자』는 결의를 보였지만 그건 차라리 신음소리와 같았다.

이때부터 밤마다 쓰레기와의 싸움이 시작됐다. 매일 평균10만명의 관람객이 버리는 쓰레기는 1백여톤이나 됐고 14개의 화장실은 항상 넘쳐흘렀다. 이를 치우고 다음날에 대비하다 보면 항상 새벽이었다. 특히 두차례의 연휴기간중에는 매일 18만~20만명의 관람객이 쇄도, 「쓰레기속」에 파묻히는 기분이었다.

청소원을 1백명으로 늘리고 수거차를 대기시키는등 비상수단을 강구했지만 「쓰레기박람회」「무질서박람회」란 호된 비판을 받았다. 나중에는 具씨자신이 관람객속으로 파고들었다. 쓰레기통과 화장실 이상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버려진 오물은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는 시범을보였다. 수세식 양변기의 사용법을 몰라 쩔쩔매는 할아버지와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주었다. 이러는 사이 얼굴은 검붉게 그을러 동료들은 「×××통부장」이란 별명을 붙여주었다.

잠을 자면서도 끙끙거리는 具씨를 보고 부인은 『무슨 일을 하길래 그러느냐』고 묻지만 그때마다 『내가 없으면 박람회가 끝장난다구』하고 대답한다. 64년 무역진흥공사에 입사한 이래 가장 힘들고 궂은 일을 맡았지만 이런점에서 보람을 느낀다.

『쓰레기가 어떻고 질서가 어떻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이번박람회는 큰손님이 있었어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둔 우리가 공중도덕과 질서지키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준것이지요』 【方旼俊기자】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구독신청은 533-2361

주택, 토지, 기업체
부동산 매매
Paul Kim 김 평
Sales Representative
Canada Permanent Trust Company
1560 Bayview Avenue Toronto,
Tel: (B)488-2444 (R)759-4560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대 학 진 학 안 내

본 교육연구회는 이번에 온타리오주 한인 대학생및 대학 학생클럽의 하나인 실학과 공동주최로 다음과 같이 대학에 진학코져 하는 고교생과 그 학부모를 위한 안내의 강좌를 개최하오니 널리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시 일: 1982년 10월23일(토) 오전 10시~오후 2시
●장 소: 토론토시 교육위원회 6층강당
155 COLLEGE ST, TORONTO, ONT,(College & McCual(University Ave,서쪽))
●내 용: 1, 강연 (1) SPECIAL SERVICES, MR, BOB SPENCER
Chairman, Toronto Board of Education
(2) UNIVERSITY ENTRANCE PROCEDURE MS, BETTY ISBISTER
Liaison Officer, Office of Admission, University of Tor,
2, 안내 (1) 한인대학생 현황보고: 정태교, 이영희
(2) 온타리오주 각 대학의 특징소개: Waterloo(이인), U of T(조성용), McMaster(Christine Yoon), York, Guelph, U of Western Ont, 기타(이영희)
(3) 대학내 한인 대학생클럽활동: 정태교, 이영희(KUSA, 실학, K.I.V.F., 구름다리, 맷돌등)
3, 토의및 질의 (1) 인문계, (2) 이공계, (3) 의료계

※본 프로그램은 한국어와 영어를 병용합니다.

후원 : 한인장학재단
주최 : 한인교육연구회장 : 조성준
온타리오 한인대학생회 회장 : 정태교
실학대표 : 김승배, 이성희

정동석목사 위임예배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귀하와 귀교회위에 항상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간 저희교회는 어려운 환난과 역경속에서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과 사랑으로 꾸준히 성장하게 된것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정동석목사님 위임예배를 드리고저 하오니 부디 오셔서 기쁨의 제단을 함께 쌓을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래—

일 시 : 1982년10월24일(주일)
오후6시 — 환영잔치
오후7 : 30 — 노회모임
오후8시 — 위임예배시작
장 소 : 50 ERB ST. W.
Water loo, Ont.

KNOX PRESBYTERIAN CHURCH

임시당회장 : REV. A. M. BEATON
워터루 — 웰링톤 노회장 : REV. IRIS FORD

연락처 : 토론토 743—0816(정동석목사)
키치너 576—4926(김진욱장로)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여자、오늘 中共과 決勝戰

亞洲청소년농구 : 日꺾고 나란히 2勝

남자는 中共에져 優勝圈탈락

【마닐라=李基洪특파원】제7회 아시아 청소년농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한 한국여자대표팀은 17일하오 5시45분(한국시간) 中共과 결승전을 벌인다.

15일 아라네타 체육관서열린 결승리그 3일째 경기에서 한국은 日本을 96-58로 대파, 中共과 함께 2연승을 기록했다.

한편 남자부결승리그서 한국은 中共에 87-63으로패해 2승2패를기록, 우승권에서 탈락했으며, 한국은 16일 말레이지아와의 대전서 승리할 경우 3위를 차지하게된다.

◇결승리그제3일

▲여자부

한 국 96(46-27 50-31)58 일 본
(2승) (2패)

중 공 109-54 필리핀
(2승) (2패)

▲남자부

중 공 87(45-29 42-34)63 한 국
(4승) (2승2패)

필리핀 89-65 말레이지아
(4승) (1승3패)

한국 8位차지 中共팀에 完敗 세계男子배구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聯合】한국은 16일 상오(한국시간) 이곳에서벌어진 제10회 세계남자배구선수권대회 7·8위전서 中共에 3-0으로 완패, 8위를 차지했다.

74년 멕시코 제8회세계선수권대회에 첫출전하여 13위를 차지했던 한국남자배구는 78년 제9회대회 (이탈리아)서는 4위에올라 상승세를보였으나 이번대회서 8위로후퇴, 큰충격을 입었다.

한편 결승전서는 蘇聯이 브라질에 전세트를 12점만 허용하고 3-0으로 승리, 6번째로 세계선수권 우승을 차지했다.

蘇聯은 대표선수 10년경력의 주장겸 세터 비아체슬라프·야체프가 팀을 이끌었다.

한국인 코치 孫永完씨가 끄는 홈팀 아르헨티나는 日本을 3-0으로 물리치고 3위를 차지했다.

◇최종일전적

▲7·8위전

중 공 3(15-8 15-7 15-5)0 한 국

▲결승전

소 련 3(15-5 15-4 15-3)0 브라질

▲3·4위전

아르헨티나 3-0 일 본

泰퀸즈컵 축구 漢大、방콕銀과 비겨 再對戰서 이겨야 決勝에

【방콕=安泰煥특파원】漢陽大는 15일밤 방콕국립경기장서 벌어진 제12회퀸즈컵축구대회 준결승1차전서 방콕은행과 2-2로 비겼다.

漢陽大는 17일 방콕은행과 재대결, 이겨야 결승전에 나가게된다.

漢陽大선 郭聖鎬(전반34분)·蘇光錫(후반30분)가 득점을 올렸다.

◇준결승1차전

한 양 대 2(1-0 1-2)2 방 콕 은 행

태국공군 2-1 라즈프라차

◇"1秒라도 더빨리…"마라톤出發 20㎞단축마라톤의 대열. 여자선수들도 함께 뛴이레이스에서 安春子(산업기지)가 한국최고기록을 세웠고 李相根(부산체고)은 한국고교최고기록으로 골인했다. 【체전취재반】

서울 金33개 獨走

한국新 모두 14개

63회 전국체육대회

【마산=체전취재반】3일째를 맞은 제63회 전국체전은 16일 27개종목가운데 수영과 사이클경기를 완료, 이날 현재 14개의 한국신기록(육상 8, 사이클 4, 수영2개) 한국타이 1개가 수립됐다.

이날 여자일반 20㎞단축마라톤서는 安春子를 비롯한 8명이 한국 신기록으로 골인했다.

대회신기록은 남고 20㎞단축마라톤의 李相根(부산)을 비롯, 육상 5개, 수영25개, 사이클 15개, 사격 4개등 모두 50개의 대회신기록이 작성되었다.

이날 수영 남일반 배영2백m에서 金度亨(전남)은 2분18초36을 마크, 종전 李忠原이 갖고있던 2분19초34를 경신해 한국신을 세웠으며, 남고계영 8백m서 서울팀은 8분32초71로 역시 한국신(종전 8분33초34)을 마크했다.

사이클 일반부 8백m 선두경기서 釜山의 崔英浚은 1분01초45로 종전기록을 0.5초 단축하고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또 경남의 崔學秀는 수영 남일반 자유형 4백m, 1천5백m, 계영4백m, 계영8백m, 혼계영4백m등 5개종목을 석권, 5관왕이 됐다.

메달레이스에서 서울은 금31개, 은16개, 동5개로 여전히 선두를 지키고있으며, 충남은 금14 은25 동21개로 2위를 마크하고있다.

트랙幅재조정 어제부터公認

【체전취재반】대한육상연맹은 16일 상오 임시 이사회를 열고 레인 규격미비로 말썽을 빚었던 트랙종목의 기록을 16일부터 공인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종합경기장 레인간의 간격은 일정치 않았으나 14·15일 이틀간 육상경기연맹 용기구 위원장 金容德씨의 감독아래 야간작업을 실시하여 각 레인간의 폭을 재조정, 이날 상오 이사회에서 공인을받아 각 시도 육상 감독자들에게 공인을 통보했다. 아직 트랙표면이 평평하지 않고 용기구가 미비한 문제점이 있으나 차차 운동장측에 보완을 종용할방침이다.

트랙경기중 첫날 15개종목이 공인을 받지못하고 참고 기록으로 처리됐으며 16일의 11개종목과 17일 14개종목등 25개종목은 공인을 받게되었다.

釜山의 李相根 고교 최고기록 20㎞단축마라톤

20㎞ 남녀단축마라톤에서 2개의 한국최고기록이 작성되었다. 16일 馬山공설운동장을 출발, 20㎞코스에서 충남의 安春子(산업기지)는 1시간15분22초로 자신이 지난80년 제2회 東京여자마라톤파견선발대회 20㎞단축코스에서 마크한 1시간22분44초를 2년만에 7분22초 앞당기고 여자부기록을 경신했다.

또한 남고20㎞레이스서는 부산의 李相根(부산체고)이 1시간3분19초를 마크해 지난79년10월 전국체전서 鄭晩和가 세운 1시간3분55초를 36초앞당기고 역시 한국고교최고기록을 세웠다. 남자일반부는 20㎞단축레이스가 없다.

이날 여자일반부에 출전한 安春子는 李美玉등 4、5명이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쾌속 질주、반환점까지 흐트러짐이 없이 뛰었으며 15㎞지점을 지나면서부터 安이 선두에 나서기 시작、1위로 골인했다. 여자부 2위는 충남의 李美玉의 1시간16분26초、충남의 柳義桂 1시간17분9초로 3위를 각각 차지했다. 남고20㎞레이스서는 부산의 林鍾九가 1시간4분11초로 2위, 대구의 金榮吉이 1시간4분26초로 3위에 올랐다.

大宇、준결進出 축구 일반부

체전 구기종목은 16일 대부분의 종목이 8강전을 가졌다. 축구일반부 준준결승에서 大宇(부산)은 星武(전남)와 1-1로 비긴후 승부킥 4-2로 승리를 거두고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趙廣來등 국가대표선수 4명이 빠지고 3명의 주전선수가 부상당한 大宇는 이날 후반15분 星武수비 宋孝永의 자살골로 리드를 잡았으나 경기종료7분전 星武 李南洙에게 동점골을 허용, 승부킥에 들어가 星武가 3명이나 실축하는바람에 승리를 따냈다.

고교축구서는 大田商高(충남)가 朴明淵의 두골, 鄭源鎬의 1골을 묶어 동2관왕 大倫高(대구)를 3-1로 꺾어 개가를 올렸다. 또 淸州商(충북)은 강호 永登浦工高(서울)와 1-1로 무승부를 이루고 승부킥 6-5로 이겨 역시 4강에진출했다.

한편 핸드볼 남고준준결승전에서 大田體高(충남)는 21-10으로 大同機工(경남)을 물리쳤으며 동여고부서는 仁川女商가 釜山女商(경남)에 21-9로 이겨 4강으로 뛰어 올랐다.

◇제3일 기록

◆육상

▲남고20㎞단축마라톤=①이상근(부산) 1시간3분19초(고교최고기록) ②임종구(부산) 1시간4분11초 ③김영길(대구) 1시간4분26초 ▲동여고=①이미옥(충남) 1시간16분26초 ②유의주(충남) 1시간17분10초 ③이명호(충북) 1시간18분10초 ④유선미(경북) 1시간21분26초 ⑤김성순(경북) 1시간21분56초 ⑥이은희(강원) 1시간22분10초(이상한국최고기록·종전 1시간22분44초) ▲동여일반=①안춘자(충남) 1시간15분22초 ②김승자(전남) 1시간20분54초(이상 한국최고·종전1시간22분44초) ③박경란(강원) 1시간23분 ▲여고4백m=①최은주(부산) 58초24 ▲동남일반=①장철(전북) 49초02 ▲동남고=①이종윤(인천) 49초01

◇메달순위 (16일현재)

	금	은	동
①서울	33	16	6
②충남	16	29	23
③경남	14	15	13
④충북	12	11	18
⑤경기	12	8	9
⑥부산	9	16	15
⑦강원	9	9	10
⑧전북	8	7	15
⑨대구	8	5	9
⑩경북	7	6	10
⑪인천	6	5	5
⑫전남	5	12	8
⑬제주	1	1	2

熱氣더해가는 體典중반 「材木」속속 浮上

그라운드는 人生의 축소판이다。승자와 패자, 승리의 감격과 패전의 아픔이 공존한다。민족의 스포츠대제전인 전국체전은 전국 각시도 선수들이치열한 메달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16일 체전 무대를 장식한 스타는 20㎞단축마라톤서 1시간15분22초로 한국여자최고기록을세운 安春子(22·충남 산업기지)와 수영남자배영 2백m의 새로운 호프 金度亨(20·전남조선대체육과)。이밖에 무명의 李相根(19·부산체고)이 20㎞단축마라톤서 1시간3분19초로 한국고교최고기록을 세워 각광을 받았다。 【체전취재반】

여자 20㎞단축마라톤優勝 安春子

1시간15분22초… 한국 最高記錄 수립

"金메달보다 평소기록 못깨뜨려 섭섭"

한국 여자마라톤의 호프 安春子(22·산업기지)가 정상을 향해 꾸준히 정진하고 있다。

전국 체전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여자 20㎞단축마라톤에서 1시간15분22초로 한국 최고기록을 작성, 밝은 미래를 약속해 주었다。

마산종합경기장 육상트랙을 한바퀴돌고 골인한 安은 『금메달을 얻은 기쁨보다는 평소기록에 미치지못했다는 안타까움이 앞섰니다』라며 땀에 젖은 얼굴을 어루만졌다。15㎞지점을 지나면서 마라톤 관계자가 『1시간15분 이내의 한국 최고기록을 마크할 수 있다』는 말을들었을때 安은 한순간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安은 평소 연습기록에서 1시간12분대를 마크했다는것。이번 레이스에서 1시간11분대를 목표로 분발했으나 힘의 안배가 잘안돼 꿈을 이루지 못했다。

경기도 城南여중 2년때 유호섭교사의 권유로 중·장거리를 시작, 城南여고 때에는 한국여자중·장거리의 1인자로 성장했다。

고3때(80년)부터 마라톤을 시작, 그해9월 제2회 東京여자마라톤 대회파견최종선발대회에서 1시간22분44초의 한국최고 기록을 수립했다。

금년2월 공인기록회 10㎞단축마라톤에서 한국최고기록을 마크해 마라톤풀코스 가능성을 제시했다。

1m54、41㎏으로 큰체격은 아니지만 끈기와 투지를 겸비하고 있다。마라톤풀코스를 2번 완주한 경험이있는데 安의 최고기록은 지난6월 미국유진씨 마라톤대회에서 마크한 2시간56분44초。

마라톤관계자들은 한국여자마라톤의 실력적인 1인자는 安春子라고 말하고 있다。현재 한국여자마라톤풀코스최고기록은 지난해 1월日本오오사카마라톤대회에서 林殷珠(조폐공사)가 수립한 2시간47분3초이다。하루평균4시간씩 20~30㎞를 달리며 앞으로 한국여자마라톤을 세계에 빛내겠다는 집념을 불태우고있다。安은 『오는 11월30일에 열리는 마라톤 선수권대회에서 한국최고 기록을 경신하고싶다。그리고 세계기록(앨리슨·로 2시간25분29초)에 도전하겠다』고 다부진 의욕을 보였다。

건축업을 하는 安錫昌씨(49)의 2남5녀중 둘째。

◇한국 최고기록의 골인 安春子가 1시간15분22초의 한국최고으로 테이프를 끊고있다。【聯合】

水泳 배영200m 한국新 金度亨

中2때부터 시작…작년 體典선 2冠王

개인混泳서도 金따내 全南의「복덩이」

…빠져 좋은 …것이라 …영에서 金度亨(20·조선대체육과2년)이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金은 남자배영 2백m에서 2분18초36을 기록, 대표선수 李忠原의 한국최고기록 2분19초34를 0·98초 앞당겼다。

莞島中 2학년때부터 헤엄을 배운 金은 제6회 소년체전에 출전, 배영에서 은·동메달 2개를따내 체전과 인연을 맺었다。

全南體高진학후 본격적으로 수영지도를받아 작년 체전서 배영1백m와 2백m 우승을 차지, 2冠王이 됐다。

당시 두종목 모두 0·01초차로 한국최고기록에 미달되었다。

올해 아산기대회에 출전했으나 성적이 좋지않았고 이번 체전을 겨냥해 맹연습을 쌓았다。

金은 이번대회 5개종목에 출전, 이날 배영2백m 한국신기록과 함께 개인혼영2백m에서 금메달을 획득, 2冠王이 됐고 은메달 4개를 보태 전남선수단으로부터 복덩이라는 칭찬을 받았다。

1m78、66㎏의 좋은 체격。金은 『이번 체전에서 좋은 기록을 내려고 이를 악물었는데 결과가 좋았읍니다。전남 연맹 홍순기회장님, 李官雄코치와 趙連五 고향선배에게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말했다。

金은 하루에 3시간가량 1만5천m내지 1만9천m를 헤엄치며 강훈련해왔다。

李코치는 『귀하는 순간 발동작이 좋진않으나 대단한 지구력을 가진선수』라고 평했다。

007映畵 2편 同時촬영

○…007시리즈 제임즈·본드영화 2편이 런던에서 동시에 촬영중이다。

「Octopussy」는 지금까지 007시리즈를 제작한 커비·브로콜리의 작품으로 감독은 존·글렌。주연인 본드역은 로저·무어가 출연료 인상을 요구하며 버티고 있어 미국배우 제임즈·브롤린으로 내정했으며 여주인공에는 모드·애덤즈가 발탁됐다。

또다른 007영화 「Never say never again」은 「선더볼작전」을 새롭게 꾸민것으로 감독은 「스타워즈」속편인 「제국의 역습」을 연출한 어빈·커시너。이 영화에는 오래간만에 숀·코널리가 본드로 컴백, 촬영단계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여주인공 파티마·블러쉬 역은 바바라·카레라가 맡았다。

2편의 007영화에서 애덤즈는 인도혈통을 지닌 악녀로 본드와 대결하며 카레라는 무술에 능한 요염한 악녀로 출연, 두 여자가 모두 사악한 인물로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숀·코널리

◇앤터니·퀸

C…1、2편 모두 흥행에 크게 성공한 「조스」3편이 제작된다。유니버설사가 입체영화로 기획한 「조스Ⅲ」의 감독은 「조스」의 미술을 맡았던 존·앨브스。촬영은 플로리다주에서 하게된다。

○…앤터니·퀸이 뮤지컬 「희랍인 조르바」의 브로드웨이 공연을 위해 노래연습에 열중이다。퀸은 지난64년 이 영화에 주연을 맡아 절찬을 받았는데 이 작품은 68년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로 공연됐고 이번이 두번째。연출은 영화를 감독한 마이클·카코야니스가 맡았다。

○…전 美국무장관 헨리·키신저가 ABC·TV의 뉴스해설가로 브라운관에 등장한다。매일밤 11시30분 세계적 사건을 심층 보도하는 「Nightline」에서 키신저는 광범위한 국제문제를 다루게 된다。

○…할리우드에선 인정을 못받고 있는 육체파 여우 라켈·웰치가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중인 「Woman of the year」에 출연, 타임지에 소개되는등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다。최근에 출연한 영화들이 흥행에 참패해 의기소침해있던 웰치는 브로드웨이의 성공에 힘입어 앞으로 자신의 새로운 작품공연까지 리처드·버튼이 내년 4월 브로드웨이 무대에 올려지는 노웰·카워드의 연극 「Private lives」에서 共演한다。이 작품은 엘리자베드·시어터그룹 창단기념프로로 브로드웨이 공연에 이어 워싱턴 케네디센터와 LA에서도 공연할 예정。

이 세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성경강연회

초청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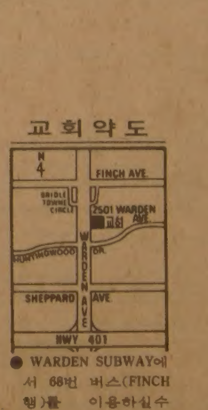
오늘날의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정치, 경제, 군사, 그리고 사회의 이례적 사태들은 단순히 우연한 일들인가, 아니면 성경의 예언에 따라 이루어져 가고있는 한 단면을 이야기 하는가를 함께 생각하고져 한 기간을 마련하였읍니다.

인류 역사는 어디를 향하여 줄달음쳐 가고 있으며 이러한 역사의 뒤안길에 살고 있는 우리 각자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며, 또 어디에서, 어떻게 그 참다움을 찾을 수 있을런지…….

짧은 기간이나마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공통된 관심사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바람과 함께 여러분들을 초청하오니 참석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보람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지구는 고장난 비행체이다
인구폭발, 기상이변, 식량위기, 석유파동, 공해, 핵무기의 공포, 대지진등
●성경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창조냐? 진화냐? 내세의 유무, 이적의 가능성등
●쏘련의 이스라엘 침공설은 사실인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인류의 종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인생은 많은 문제를 안고있다.
생의 의미, 죽음, 내적갈등, 구원등의 많은 문제
●거듭(구원)나지 못하고 사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 멸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과연 당신은 들림받을(휴거) 준비가 되어있는가?

교회약도



● WARDEN SUBWAY에서 68번 버스(FINCH행)를 이용하실수 있읍니다.
● 집회기간중 어린이를 돌보아 드립니다.

● 강사 : 소 천 섭 목사(국제선교협의회 사무총장)
● 일시 : 1982년10월21일(목)~26일(화). 저녁 7 시30분부터 (일요일은 오후 2 시부터)
● 장소 : 2501 WARDEN AVE. SCARBOROUGH (BRIDLEWOOD PRESBYTERIAN CHURCH, SHEPPARD와 FINCH 사이)
● 연락처 : 439-1964

기독교복음침례회토론토교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범한서적
◉한국전집류 ◉고전, 현대소설
◉유치원 백과, 새생활 백과사전
◉사전류, 가정요리, 꽃꽂이 ◉광복20년
1712 Queen E. 전화 : 690−2216
북미주총판책임자 최 규 흘

사진

새 하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씰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식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중국집) 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 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 10시 − 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마련.
전화 : 532−1054(아리랑식당 옆)
712 Bloor St. W. 김 덕 기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내장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님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145−1516, 1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 현 두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블라도)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1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1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37 Primrose Ave. Toronto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하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와닌태권도 完八路拳道
[illegible]
이성대, 이현주 사범 직접 개인지도
조양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 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요법·지압·단식요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전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D.Y. Import Co. Canada

한국 밑반찬 만드는데 경험이 있는분 구함.

전화 : 622－5379 MRS. 오

웨이터, 웨이트레스
18세이상 주말 학생 파타임 구함 (1명)
(목·금·토 저녁에만) 경험 없어도 됨.
114 Laird Dr. 전화 : 421－6016
일본식당(오후 2시30분 이후 연락바람)

출퇴근 하시면서 애들 돌봐 주실분
(베더스트 × 휜치)
전화 : 665－9585

샌드위치숍에서 일하실 카운터 헬퍼구함. ◉주5일. 추레인 시킴. 직접 내방바람.
68 Yonge St. LULU'S CAFE.

입주 또는 출·퇴근 하시면서 애기 봐주실분 구함
◉주5일. 스카보로 북쪽.
전화 : 496－1664 Mrs. 리

Sales Help wanted (베다스트×로렌스)
현대식 사무실, Leads supplied, parking
Mr. Roy 전화: 789－1241 Louis Roy Ltd., Realtors

주말에 도넛숍에서 일하실분 구함.
전화 : 977－0303 다운타운 지역.

토요일도 광고접수

오전10시부터
오후 5 시까지

☎ : 533－2361～4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한 국 일 보 광 고 부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Grade 7부터 Grade 9까지의 수학·과학을,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엔지니어가 개인지도 또는 그룹을 지도함.
전화 : 293－3149 Mr. Sam Lee

양장, 재단 개인지도(휜치 & 베더스트) 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취급함)재봉은 하지만재단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구혼

결혼상담,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Mrs. Adroe) 636 Vaughan Rd. #1(at Oakwood St.)

매매

Coffee Shop
주매상 : $4,000(7:00 a.m.～5:00 p.m.주5일 영업)
Rent : $1575. 리스 : 3년반+5년. 10만불 Down.
good profit. 가격 : $165,000
황용현부동산주식회사
Call : 이헌영 449－8644(B). 686－0207(R)

그로서리 Store 매매. (이층은 살림집)
년매상: $200,000. 가격: $95,000 (일요일 휴점)
모개지: $30,000 at 8¾%. 연락처: 519－327－8368

TUCK SHOP(시간 짧고 이윤좋은 가게) $15,000다운+모기지
개인사정으로 급매. 주매상: $2,500 아스킹: $25,000+스탁
전화 : 275－9507 20 Mississauga Valley Blvd.

버라이어티 가게 급매
주매상 : $4,000. 리스: 1년(650불) + 5년
550 Sheppard Ave. W.

★Coffee & Snack Shop(주6일 Open)
Office Building 과 Shopping Mall내에 위치함.
주매상: $10,000. 리스: 4년+5년 옵션
가격: $400,000
★Dry Cleaning Business
고급주택과 Apt.가 밀집한 위치.
주매상 : $7,000. 리스: 9년 가격: $265,000
A.E.Lepage Mrs. Woo(우) 전화 : 741－9170

각종 알로베라제품 판매. 쥬스·크림·로숀·약용크림외 다수품목 보유. 최저 염가 봉사합니다.
5439 Yonge St. 전화 : 222－4717 Mrs. 김

남자옷 맞춤과 남자옷 파는가게 매매
스카보로 플라자.
1년 Sales $200,000
주인이 정년퇴직 관계로 팔고자 함.
전화 : 752－6466 · 491－2573(저녁)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25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set $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 $3,000. 렌트 : $300(M)
전화 : 259－0323

오샤와 시내 주택가에 위치한 3층 아파트빌딩 좋은 가격에 팝니다. 한달인캄 : $1,200
아스킹 : 11만8천불. 전화 : 293－3515 MIKE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오셔서 보시고 문의바랍니다.
전화 : 294－8164

GROSS 캐쉬레지스타 팔고자 함.
관심 있으신분 내방바람
468 Cosburn Ave.(Greenwood & Cox w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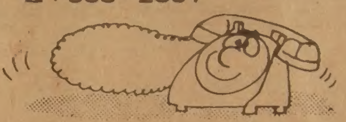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좋은 조건의 가게 싸게 팝니다.
관심있으신 분 직접 내방요. 주매상: $4,000
430 York Blvd., Hamilton(해밀톤)

COIN LAUNDRY 급매코자 함.
(그린우드×코스본) 가격: $16,000
리스2년+옵션 전화 : 537－4910 Mrs.김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좋은 가격
Ossington × Bloor.
전화 : 531－1023, 531－5005

**한국일보 안내광고는
내보신 분만이
그 효과를 압니다.**

한국일보 광고문의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베출러 아파트 서부렛(Sublet) 합니다.
11월초 부터 입주 가능. 월: $168.－
전화 : 292－6067 (저녁 7시이후)

방세 혹은 하숙합니다. 1 Bedroom
Near Dufferin Subway. 여성에 한함.
전화 : 279－2369(R) 533－2361(B) Mrs. 조

집렌트

4 Bed Room House전체를 세놓고자함(Brampton지역)
2 Bath Room, Family Room, Fire Place, 차고등.
학교와 Shopping plaza근처에 있음. 593－89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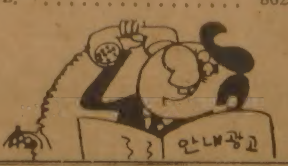
Flat for Rent(Euclid & Harbord)
$375/M. 오전 10시부터 오후6시사이에 연락바람.
전화 : 977－3758

집세놓음 (4 Bed Rms) mimico area.
중앙식 Air Con . 차고 있음. 교통 매우 편리.
Downtown에서 5분 거리 전화 : 368－9018, 366－0960

단층집(Semi Detaches) 4 Bed Room 세놓음.
Home Bar등 지하실 꾸며져 있음. ($650/M)
스카브로지역(Neilson & Sheppard). 전화 : 968－9450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호남향우회	651－8835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우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K. A. L.	862－8250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박석용 전화 : (B) 752－3111. (R) 298－251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섭
부사원(IC & I)
전화 : (B) 497 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일체.)
(B)449－8644～5 (R)286－1548
★이헌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CANADA PERMANENT TRUST CO.
강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춘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가구점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쉐퍼드 · 마캄)
전화 : (B) 291 3818. (R) 719 9687. 716 0981 조 석 민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관 광

코라메 관광(주)(제일여행사 2층)
일년내내 관광을 함께·····
649 A Bloor St. W. 전화 : 535－0853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지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안)
각종 파티·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청 춘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 3719(R)여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웨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1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윌치)
전화 : 746－3458

광고문의 533－2361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5시 이후)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138 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 : 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미술연구소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RALPH M. LEVINE B.A.(Barrister and Solic 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불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송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얼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배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린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